



World EXPO 2030
BU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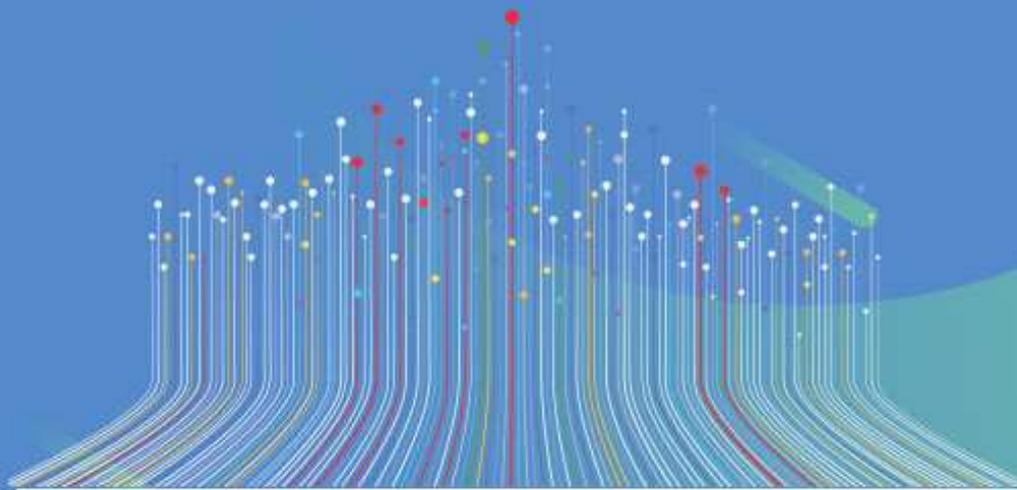
www.expo2030.org
Exposition

2023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

BUSAN CULTURE CONFERENCE



5.4.(Thu) 14:00

부산 국제 문화 포럼 '문화예술로 회복하는 이웃 간 평화와 연대'

Busan International Culture Forum "Restoring peace and solidarity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by Arts & Culture"

5.5.(Fri) 15:00

한일 유네스코 연석회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Joint Meeting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Japanese Commission for UNESCO
"The Role of Arts & Culture and Arts in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유네스코 일본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 컨퍼런스 개최식 및 국제 문화포럼

(2023년 5월 4일(목) 14:00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

[부산 문화 컨퍼런스 개최식]		
사회: 황 범 KNN아나운서		
14:00~14:15	축하 공연	춘앵전(김동후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
14:15~14:20	환영사	안병윤(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14:20~14:25	개회사	이미연(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4:25~14:40	축사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황보승희(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최영진(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한경구(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오까무라 나오코(유네스코 일본위원회 사무총장) ※온라인
14:40~14:50	부산 선언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협력 부산 선언' 낭독
14:50~15:00	기조 발언	'문화교류를 통한 포용과 평화 회복' Ernesto Ottone R(UNESCO 문화 ADG) ※온라인

[부산 국제 문화 포럼]		
'문화예술은 충돌하는 이웃 간 평화를 어떻게 회복시켜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사회: 황 범 KNN아나운서		
15:05~15:30	주제발표1	'포용과 화합, 협력을 위한 UNESCO 문화정책 어젠다' Paula Leoncini Bartoli(UNESCO 문화정책개발국장) ※온라인
15:30~15:55	주제발표2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 지역 갈등 극복의 해결책' Feng Jing (UNESCO 아시아 태평양 문화 총괄)
15:55~16:20	주제발표3	'평화와 연대를 위한 부산의 실천적 대응과 노력' 남송우 (고신대 석좌교수)
16:20~16:30	break	
16:30~17:30	종합토론	[토론자] 요시모토 미츠히로(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이사) 이창기(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모더레이터] 이미연(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Conference Opening Ceremony & Busan International Culture Forum

(May 4th(Thu) 2023, 14:00, Busan ASTI Hotel Conference Room)

[Conference Opening Ceremony]

Moderator: Hwang Beom, KNN Announcer

14:00~14:15	Theme Performances - Chun'angmu	Kim Dong-hu (Busan National Gugak Center)
14:15~14:20	Welcome Address	Ahn Byung-yoon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Administration)
14:20~14:25	Opening Declaration	Lee Mee-yeon(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14:25~14:40	Congratulatory Add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on Sung Chun(General Director of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Hwang Bo Sunghee(Members of Parliament in Korea) ▶Choi Yeong-jin (Chief of Administrative and Culture Committee, Busan City Council) ▶Han Kyung Koo(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Commission for UNESCO) ▶Okamura Naoko(Secretary-General of the Japanese Commission for UNESCO) ※on-line
14:40~14:50	Busan Declaration	Busan Declaration on Peace and Partnership through Arts and Culture by All Participants
14:50~15:00	Key Note Message (ONLINE)	'Restoration of tolerance and peace through cultural exchange' ▶Ernesto Ottone R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of UNESCO)

[Busan International Culture Forum]

'How arts & culture can change the world by restoring peace between conflicting neighboring countries?'

Moderator: Hwang Beom, KNN Annou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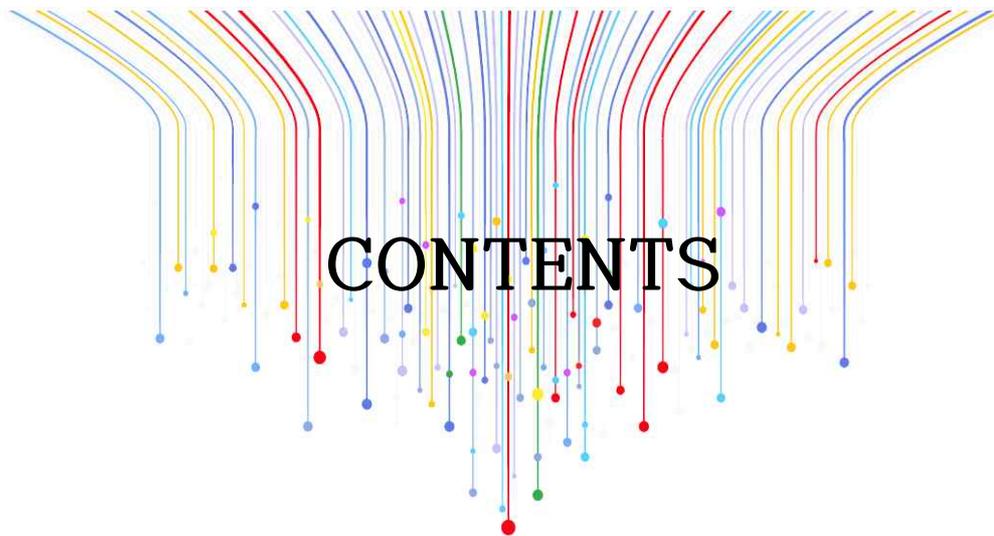
15:05~15:30	Presentation1	'UNESCO's Cultural Policy for Inclusion,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Paula Leoncini Bartoli(Director of Cultural Policies and Development) *Online
15:30~15:55	Presentation2	'Overcoming Regional Conflicts through Cultural Divers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n Pacific' ▶Feng Jing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Asia Pacific) *Online
15:55~16:20	Presentation3	'Highlighting the Impact of Culture and Social Practices on Peacebuilding initiated by Busan' ▶Nam Song-woo(Emeritus Professor Kosin University)
16:20~16:30	break	
16:30~17:30	Comprehensive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shimoto Mitsuhiro (Director, Center for Arts and Culture at NLI Research Institute, Tokyo) ▶Lee Chang-gi (Chairman,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CEO of Seoul Cultural Foundation) [Moderator] ▶Lee Mee-yeon (CEO of Busan Culture Foundation)

■ **한일 유네스코 연석회의**(2023년 5월 5일(금) 15:00 부산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

시간	내용	어젠다/참가자	
14:30-15:00(30)	참가자 접수 및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및 배석자, 미디어관계자	
15:00-15:05(5)	개회선언 및 참가자 소개	좌장: 장제국(동서대학교 총장)	
15:05-15:10(5)	환영사	이성권(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15:10-15:15(5)	연석회의 취지 설명	이미연(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5:15-15:30 (15)	기조발언 "문화를 통한 평화 외교, 조선통신사"	한일의원연맹 · 조선통신사위원회 (국회부의장, 조선통신사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일한의원연맹 · 조선통신사위원회위원장 일한친선협회중앙회회장	가와무라 타케오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대행	김태환
〈의제토론1〉			
	기록유산 기반 조선통신사의 인류무형유산적 가치 발견과 확산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 공유	부산문화재단 (강남주 전 부경대총장)
		조선통신사 가치 확산을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	연지연 (마츠바라 카즈유키 이사장)
		의제에 대한 자유발언 및 코멘트	〈연석회의 참가자 자유발언〉
〈의제토론 2〉			
15:30-16:30 (60)	미래세대 한일 평화, 연대의 가치 확산을 위한 청소년 문화활동	한-일 청소년 조선통신사 공동 프로그램	한국유네스코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
		한일 양국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	일본유네스코위원회 (사기사카 카츠히사 부사무총장)
		의제에 대한 자유발언 및 코멘트	〈연석회의 참가자 자유발언〉
〈의제토론 3〉			
	민간-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류와 '2025오사카, 2030부산엑스포'의 문화 협력	지역-민간 중심의 한일 문화예술 교류	한일의원연맹 (황보승희 국회의원)
		엑스포를 통한 양국의 문화 협력	
		의제에 대한 자유발언 및 코멘트	〈연석회의 참가자 자유발언〉
16:30 - 17:25(55)	참석자 및 배석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	의제에 대한 종합 의견 교환	
17:25 - 17:30(5)	폐회선언 및 마무리 발언	좌장: 장제국(동서대총장)	
17:30 - 19:00(90)	만찬	연석회의 참가자 및 배석자(50인)	

■ 日韓ユネスコ懇談会 (2023年5月5日(金) 15:00 釜山アスティホテルグランドボールルーム)

時間	内容	備考 及び 登壇者/ディスカッション参加者 (敬称略)	
14:30-15:00(30)	参加者受付・挨拶	懇談会登壇者、ディスカッション発言者及びその他参加者 メディア関係者	
15:00-15:05(5)	開会宣言と登壇者紹介	座長: チャン・ジェグク (東西大学総長)	
15:05-15:10(5)	歓迎	イ・ソンクォン (釜山広域市経済副市場)	
15:10-15:15(5)	懇談会の趣旨説明	イ・ミヨン(釜山文化財団 代表理事)	
15:15-15:30 (15)	基調挨拶 :「文化交流を通じた平和外交、朝鮮通信使」	韓日議員連盟・朝鮮通信使委員会委員 (国会副議長、韓日議員連盟・朝鮮通信使委員会委員長)	キム・ヨンジュ (国会副議長)
		日韓議員連盟・朝鮮通信使委員会委員長 日韓親善協会中央会会長	河村建夫
		韓日親善協会中央会会長代行	キム・テファン
<アジェンダディスカッション1>			
15:30-16:30 (60)	朝鮮通信使における人類無形遺産の価値の発見と拡散	朝鮮通信使の世界記録遺産(世界の記憶)登録への道のり	釜山文化財団 (元 釜慶大学長 カンナムジュ)
		朝鮮通信使の価値拡散のための両国協力	縁地連 (理事長 松原一征)
		議題に対する自由発言・コメント	<懇談会参加者による自由発言>
<アジェンダディスカッション2>			
15:30-16:30 (60)	未来世代のための韓日平和、連帯の価値拡散のための青少年文化活動	日韓青少年朝鮮通信使共同プログラム	韓国ユネスコ委員会 (事務総長 ハン・ギョングク)
		日韓両国の教員研修プログラム	日本ユネスコ委員会 (副事務総長 匂坂克久)
		議題に対する自由発言・コメント	<懇談会参加者による自由発言>
<アジェンダディスカッション3>			
16:30 - 17:25(55)	民間・地域中心の文化芸術交流と「2025大阪、2030釜山エキスポ」における文化的協力	地域・民間中心の日韓文化芸術交流	韓日議員連盟 ファン・ボ・スンヒ(国会議員)
		エキスポを通じた両国の文化協力	日韓議員連盟議員 河村建夫委員長が推薦(予定)
		議題に対する自由発言・コメント	<懇談会参加者による自由発言>
16:30 - 17:25(55)	総合討論 (ディスカッション発言者及びその他参加者が全員参加)	議題に対する総合意見交換	
17:25 - 17:30(5)	閉会宣言と締めくくり	座長: チャン・ジェグク (東西大学総長)	
17:30 - 19:00(90)	晩餐会	懇談会登壇者、ディスカッション発言者及びその他参加者(約50名が参加)	



1. 부산선언문 -----	8
Busan Declaration	
2. 주제발표 2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 지역 갈등 극복의 해결책’ -----	15
- 핑징 (UNESCO 아시아 태평양 문화 총괄)	
Presentation2 ‘Overcoming Regional Conflicts through Cultural Divers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n Pacific’	
- Feng Jing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Asia Pacific)	
3. 주제발표 3 ‘부산발 해양인문학을 통한 평화공존의 모색’ -----	55
- 남송우 (고신대 석좌교수)	
Presentation3 ‘Highlighting the Impact of Culture and Social Practices on Peacebuilding initiated by Busan’	
- Nam Song-woo(Emeritus Professor Kosin University)	
4. 종합토론 -----	79
Comprehensive Discussion	
- 이미연(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Lee Me-yeon (CEO of Busan Culture Foundation)	
- 요시모토 미츠히로(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이사)	
Yoshimoto Mitsuhiro	
(Director, Center for Arts and Culture at NLI Research Institute, Tokyo)	
- 이창기(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Lee Chang-Gi (Chairman,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CEO of Seoul Cultural Foundation)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협력 부산 선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세계선언과 조선통신사 정신의 수용

부산문화재단

전문

2023년 5월 4일 대한민국 부산에 모인 우리 부산 문화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문화 정책이 국제 의제에서 평화, 이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목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특히 '평화'(목표 16)와 '파트너십'(목표 17)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문화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예술과 문화를 통한 평화, 연대 및 협력에 관한 부산선언은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세계선언과 2015년 유엔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선언에 문화를 포함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문화 활동, 창의적 표현,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등재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에서 영감을 받아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이상을 선언하며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깃든 평화 정신과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중요성에 영감을 받아 깊은 신념과 일체감을 가지고 예술과 문화를 통한 평화와 협력 증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문화적 다양성과 권리>

우리는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문화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 다원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고 평화와 공존의 세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우리는 예술과 문화가 세계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문화정책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평화 구축, 분쟁 해결,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예술과 문화의 활용을 촉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 다양성, 상호 이해,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문화, 예술, 유산 분야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을 장려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우리는 부산문화재단의 2030 비전인 문화정책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평화(목표 16)와 파트너십(목표 17)"에 부합시키려는 목표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넷째,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우리는 국가 내 및 국가 간 통합과 결속의 필수적인 원천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다섯째, <문화정책의 사회적 영향>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이니셔티브의 잠재력을 인식합니다.

여섯째, <문화 파트너십>

우리는 문화 다양성, 평화,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문화 정책 입안자, 예술가, 학자, 문화 단체 대표들 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통한 평화와 파트너십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문화기관, 시민사회단체, 예술가,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곱째, <문화 프로젝트에서의 연대와 협력>

우리는 조선통신사 같은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평화, 이해, 문화 교류에 대한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 모범 사례, 지식, 자원을 공유할 것을 약속합니다.

<'A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잘 있거라' 'Welcome to Arts and Culture 예술과 문화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문화예술의 변혁적 힘으로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합시다. 우리 부산 문화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문화정책을 통한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며, 각국 정부, 문화기관, 시민사회단체, 예술가, 학계가 이 글로벌 미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함께 문화의 힘을 활용하여 평화와 파트너십을 증진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예술과 문화의 변혁적 힘을 활용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文化芸術を通じた平和と協力の釜山宣言： ユネスコ文化多様性世界宣言と朝鮮通信使の精神の受容

釜山文化財団

前文

我々、2023年5月4日に韓国・釜山で開催された釜山文化会議の参加者は、芸術と文化を通じて世界平和を推進することへの揺るぎない決意を、誇りに思っ宣言する。我々は、文化政策が、国際的な課題である平和、相互理解、持続可能な開発を促進するという目的を優先させるべきだと確信する。

そのために、我々は、国連の持続可能な開発目標（UN SDGs）、特に「平和」（目標16）と「パートナーシップ」（目標17）の達成における文化が果たす重要な役割を認識しつつ、UN SDGsへの献身を再確認する。「芸術文化を通じての平和と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釜山宣言」は、UNESCOの「文化的多様性に関する世界宣言」（2001年）と「持続可能な開発目標に文化を盛り込むことを求める宣言」（2015年、国連とUNESCOが共同採択）に基づく。

我々は、文化活動、創造的表現や国際協力が、国家や人々間の相互尊重・理解を促進する上で、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を認識しつつ、朝鮮通信使から「誠信交隣」という理念を引用して、より平和で調和のとれた世界を目指して不断の努力を行うことを誓う。

2017年にUNESCOの「世界記憶遺産（世界の記憶）」に「朝鮮通信使に関する記録」を韓国と日本で共同認定・登録したことは、記録物の文化的かつ歴史的な重要性を強調するものである。釜山に宿る平和の精神と朝鮮通信使の歴史的な重要性に端を発し、同記録物の世界記憶遺産への認定は、国家間平和と理解を促進するために、記録物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を示す。

従って、私たちは深い信念と結束感を持って、芸術と文化を通じた平和と協力の促進に尽力することを宣言する。

第一に、<文化的多様性と権利>

文化創造の主体である人間は、性別、宗教、人種、世代、地域、政治的見解、社会的地位、経済的地位、身体的状況にかかわらず、文化的表現や活動において差別されるべきではない。彼らは自由に文化を創造し、文化活動に参加し、文化を楽しむ権利があり、これは保証されるべきである。

我々は、文化的多様性が社会を豊かにし、平和と共存の基盤になると信じる。人間は自由な方法で文化を創造し、異なる文化の違いを理解し、共存の世界文化を創造することに貢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に、<平和のための芸術と文化>

我々は、芸術文化が世界平和の回復に不可欠な役割を果たし、国際文化政策の主要な議題となるべきとの信念を再確認する。我々は、平和構築、紛争解決、国家間の相互理解の促進のための手段として、芸術文化を

推進することを約束する。我々は、文化、芸術、遺産の分野における国際協力の拡大を奨励する。我々は、文化的多様性に対する賞賛、理解、そして世界平和の促進における、異文化交流や協力の価値を認識する。

第三に、<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の文化政策>

我々は、釜山文化財団の2030年ビジョンと、文化政策をUN SDGsのうち、特に「平和（目標16）」と「パートナーシップ（目標17）」に沿って策定・実施する趣旨を支持する。我々は、これらの目標の実現に貢献する文化政策を開発・実施するために、共同で取り組むことを誓う。

第四に、<文化的多様性と包摂性>

我々は、文化的多様性を、国内外での統一性と結束の不可欠な源として尊重し、賞賛する。我々は、革新、創造性、平和と理解を促進する上での文化的多様性の価値を認識する。

第五に、<文化政策の社会的影響>

我々は、芸術と文化を通じて社会的包摂を促進し、地域社会の結束を強化する政策やプログラムの開発を提唱する。我々は、文化的な取り組みが、地域の人々の健康や幸福を向上させる可能性を認識し、より包摂的で調和のとれた社会の実現に努める。

第六に、<文化パートナーシップ>

我々は、文化的多様性、平和、理解の促進における協力、ベストプラクティスの共有のため、文化政策立案者、芸術家、学者、文化団体の代表間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を支援する。我々は、芸術文化の分野での国際的な協力とパートナーシップの必要性を認識する。我々は政府、文化機関、市民社会団体、アーティスト、学者など、様々なステークホルダーと協力し、芸術文化を通じた平和とパートナーシップという共有ビジョンを実現するために協力することを誓う。

第七に、<文化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連帯と協力>

我々は、朝鮮通信使などの文化的事業において、連帯と協力を強化することの重要性を強調する。我々は、事業の成功と持続可能性、また、これらの事業の平和、理解、文化交流への貢献を支援するため、ベストプラクティス、知識、リソースを共有することを誓う。

'Farewell to Arm' 'Welcome to Arts and Culture'

芸術文化の変革力を結集して世界を救いたい。我々、釜山文化会議の参加者は、文化政策を通じた世界平和と持続可能性を心から支持する。この宣言を実施するための揺るぎない支援を誓い、政府、文化機関、市民団体、アーティスト、学識経験者がこの世界的な使命に参加することを求める。我々は、平和とパートナーシップを促進するために文化の力を活用することで、より公正で公平、かつ持続可能な世界を築くことができる。

「今こそ行動の時。団結し、アートと文化の変革力を利用して、全ての人にとってより良い世界を築こう」

Busan Declaration for Peace and Partnership Through Arts and Culture : Embracing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Spirit of Joseon Tongsinsa

Busan Cultural Foundation

Preamble

We, the participants of the Busan Culture Conference, came together in Busan, Republic of Korea on May 4th, 2023, proudly declare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promoting world peace through arts and culture. We firmly believe that cultural policies should prioritize the goal of promoting peace, understan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international agenda.

To this end, we reaffirm our dedication to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pecifically "Peace" (goal 16) and "Partnership" (goal 17), recognizing the essential role that culture plays in achieving these objectives. The Busan Declaration on Peace,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rough Arts and Culture builds on the objectives of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in 2001 and the Declaration on the Inclusion of Culture in the Decla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ointly adopted by the UN and UNESCO in 2015.

Recognizing the vital importance of cultural activities, creative express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ostering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among nations and peoples, we proudly proclaim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ideals of “성신교린”, “誠信交隣”, "Faith With Sincerity And Integrity,"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Joseon Tongsinsa, The Joseon Tongsinsa, whose documents were jointly registered by Korea and Japan with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n 2017, as we strive towards a more peaceful and harmonious world."

Inspired by the spirit of peace embodied in the city of Busan and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Joseon Tongsinsa, with deep conviction and a sense of unity, we declare our commitment to promoting peace and cooperation through arts and culture.

Article 1: <Cultural Diversity and Rights>

We believe that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gender, religion, race, generation, region, political opinion, social or economic status, or physical condition, has the right to express themselves culturally without discrimination. Therefore, we commit to ensuring that cultural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upheld and protected. We also recognize that cultural diversity is the foundation of pluralism, which enriches societies and promotes peaceful coexistence. We strive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diverse cultures and to create a world culture of peace and coexistence together.

Article 2: <Arts and Culture for Peace>

We reaffirm our belief that arts and culture play a vital role in restoring world peace and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We commit to promoting the use of arts and culture as tools for peacebuilding, conflict resolu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nations. We also encourage the expansion of cross-cultur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arts, and heritage, recognizing their value in promoting the celebration of cultural diversity, mutual understanding, and ultimately, world peace.

Article 3: <Cultur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support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s 2030 Vision and its aim to align cultural policies with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pecifically "Peace (goal 16) and Partnership (goal 17)." We pledge to work collectively to develop and implement cultural policies that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se goals.

Article 4: <Cultural Diversity and Inclusivity>

We commit to respecting and celebrating cultural diversity as an essential source of unity and cohesion within and among nations. We recognize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n fostering innovation, creativity, and promoting peace and understanding.

Article 5: <Social Impacts of Cultural Policies>

We advocate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grams that promote social inclusion and strengthen community cohesion through arts and culture. We recognize the potential of cultural initiatives to improve the health and happiness of local people and to create a more inclusive and harmonious society.

Article 6: <Cultural Partnerships>

We support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among cultural policymakers, artists, academics, and representatives from cultural organizations to foster collaboration and share best practices i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peace, and understanding.

Particularly, we acknowledge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We pledge to collaborate with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s, cultural institu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tists, and academics, to achieve our shared vision of peace and partnership through arts and culture.

Article 7: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Cultural Projects>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cultural projects such as the Joseon Tongshinsa. We commit to sharing best practices, knowledge, and resources to support the success and sustainability of these projects and their contributions to peace, understanding, and cultural exchange.

<From 'Farewall to Arms' to 'Welcome to Arts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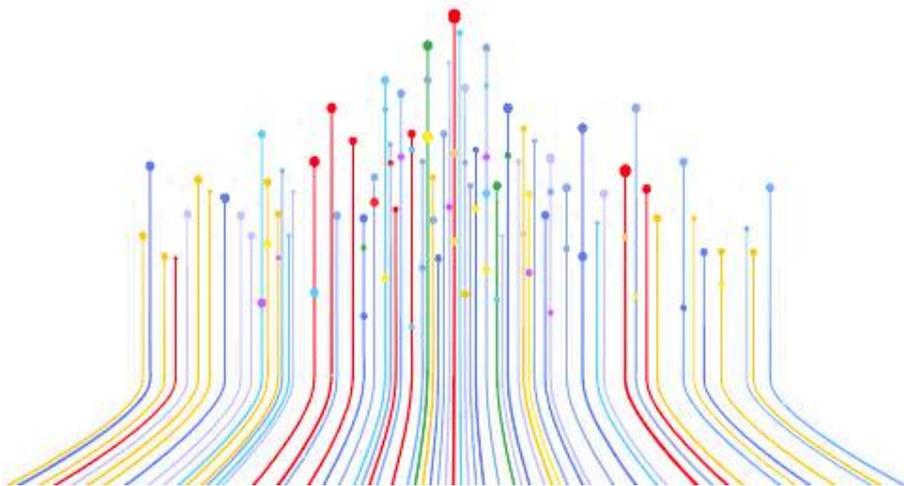
let us unite and us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arts and culture to save the world. We, the participants of the Busan Culture Conference, wholeheartedly advocate world peace and sustainability through cultural policies. We pledge our unwavering support to implement this Declaration and invite governments, cultural institu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tists, and academics to join us in this global mission. Together, we can build a more just, equitable, and sustainable world by harnessing the power of culture to promote peace and partnership.

“Now is the time for action. Let us come together and us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arts and culture to build a better world for all.”

주제발표 2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 지역 갈등 극복의 해결책’

Presentation 2
‘Overcoming Regional Conflicts through Cultural Divers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n Pacific’

펑징 (UNESCO 아시아 태평양 문화 총괄)
Feng Jing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 다양성과 협력을 통한 역내 분쟁 해소

Feng 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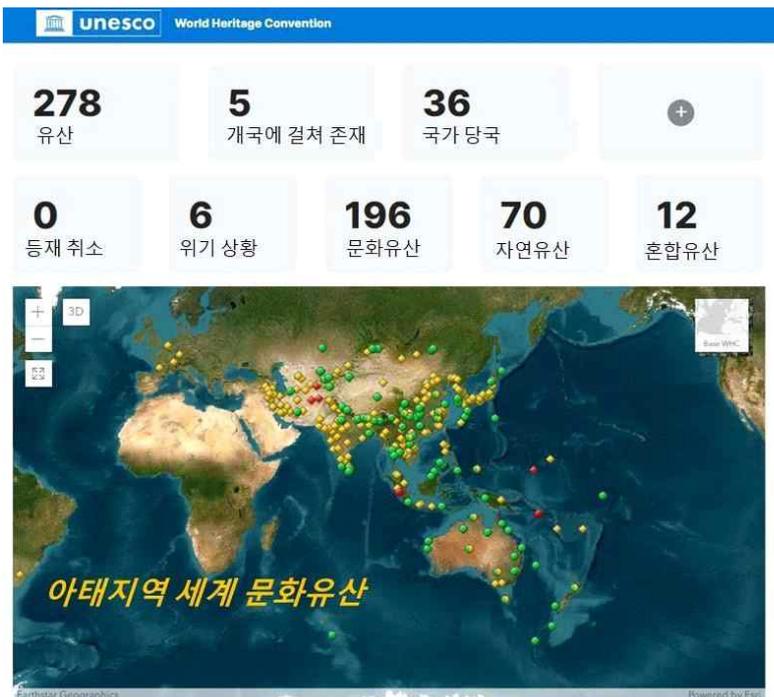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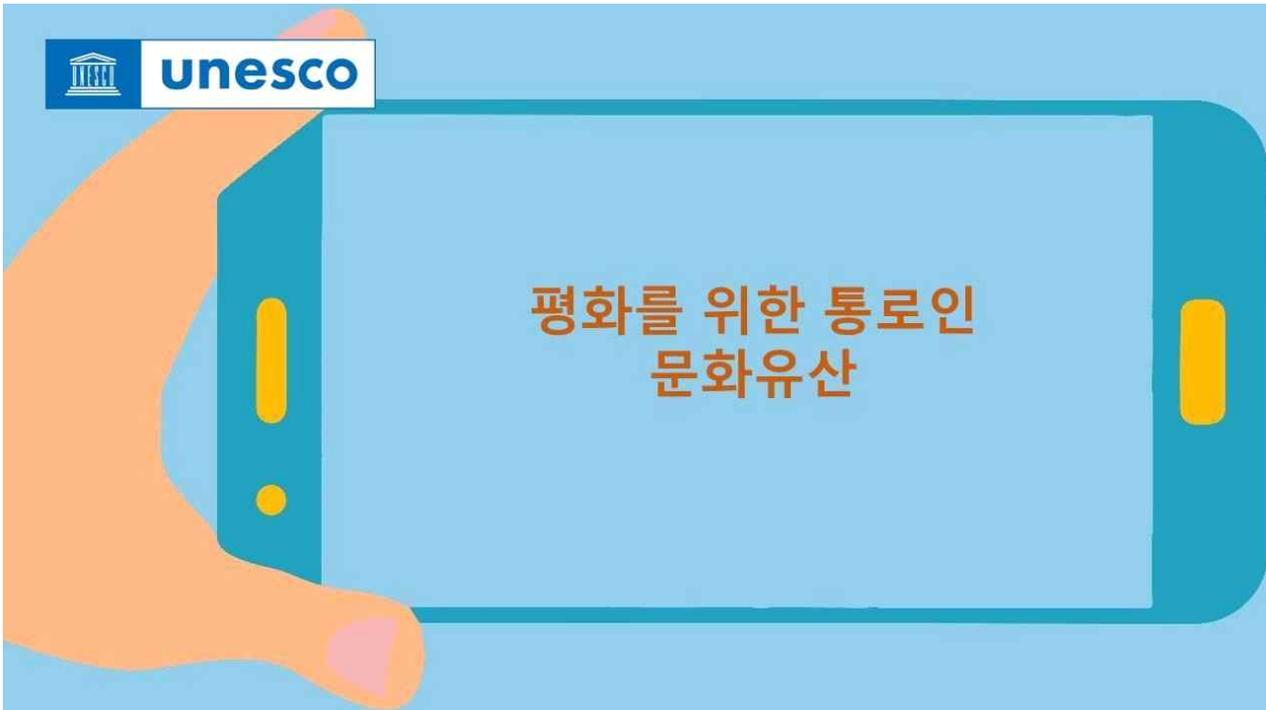
유네스코 방콕, 문화 부서장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Bangk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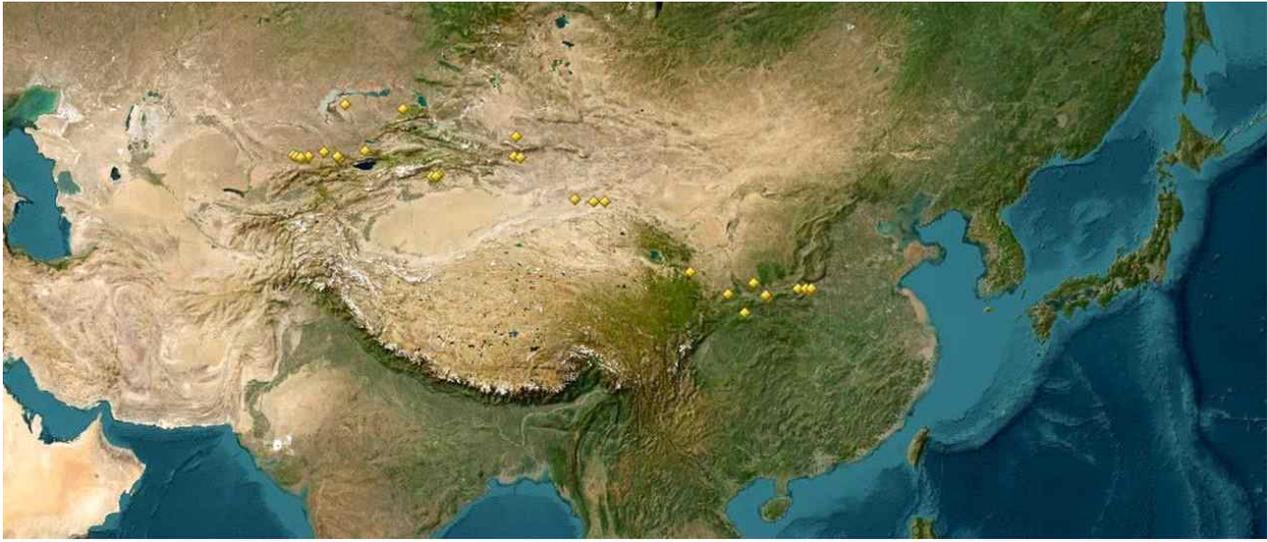


평화 구축에서 문화유산의 역할

- **평화를 위한 통로인 문화유산**
 - 초국가적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실크로드
- **평화를 위한 대화인 문화유산**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
 - 동남아시아 공유 역사 프로젝트
- **평화의 표현인 문화유산**
 - 무형 문화유산 공동 등재 사례
 - 살아있는 유산(ICH) 및 교육 글로벌 프로그램
 - 평화를 위한 협력(T4P: Together for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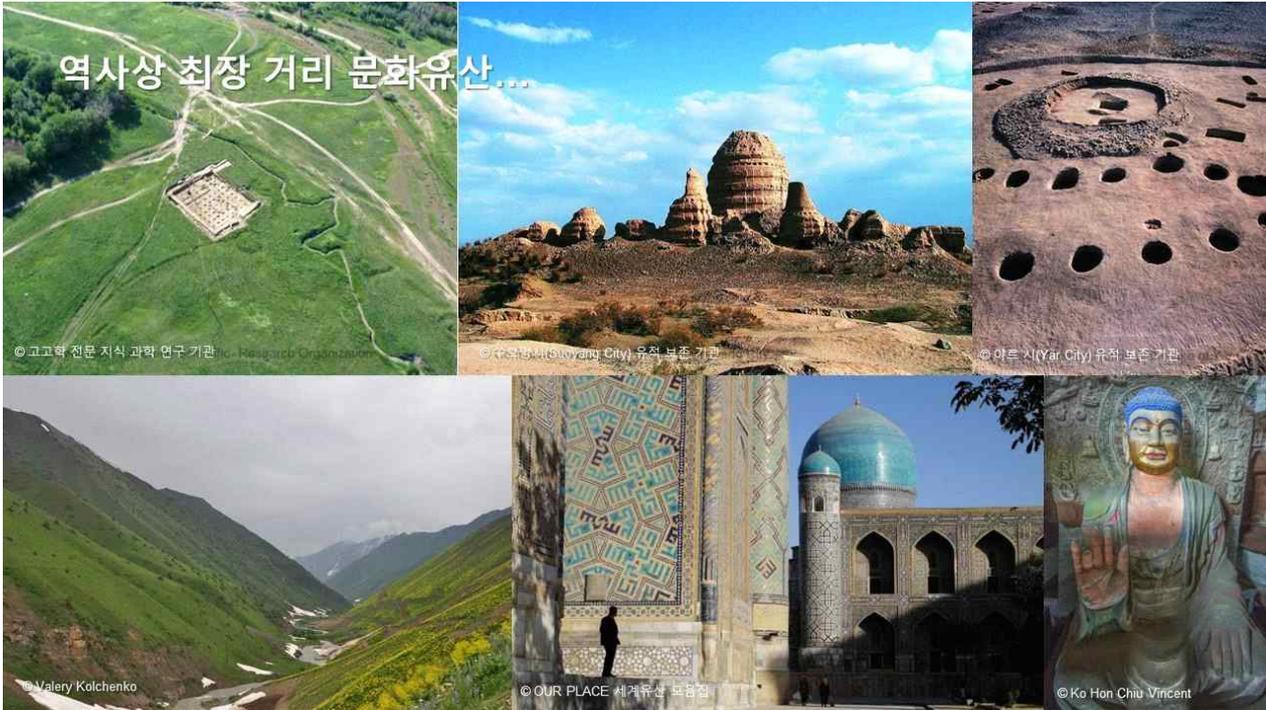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인 세계
문화유산 등재



초국가적 문화유산 등재: 인류 공동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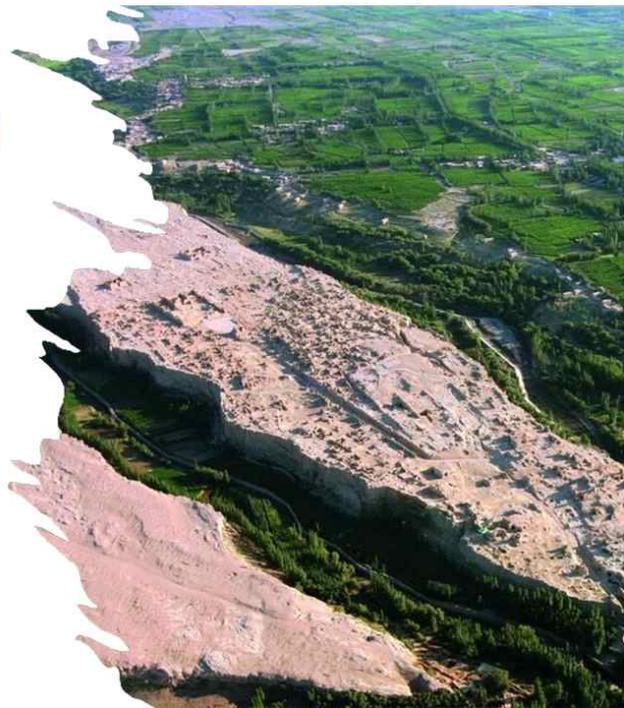


무역, 종교, 과학 및 기술 발전에서의 상당한 교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에서의 국제 교류의 증거

- 무역
- 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 과학 및 기술 발전: 제지 기술, 인쇄, 화약, 주철, 석궁, 자석 나침반, 도자기 등

© 아르시(Yar City) 유적 보존 기관





최초로 순차적이고 초국가적인 등재를 향한 국제적 협력 촉진 - 과정

- 정부 간 조정 위원회 형성
- 현재 **16개 참가국**과 **1개 참관국**이 포함됨
 -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파키스탄,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부탄(참관국)
- 공동 가치 체계, 기능적 협력 메커니즘과 적절한 상부 지침



© Ko Hon Chiu Vincent



평화를 위한 대화인 문화유산



회복력 있는 사회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문화유산의 역할은?

“**평화로운 사회는 회복력 있는 사회이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사회는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의 충격을 더욱 잘 흡수하여 분쟁을 줄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역사는 다층적이고 복잡하지만, **문화유산 지정, 보호, 보존, 이해와 관리는 공동체 안팎으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따라서 평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Gurmeet Sangha Rai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 심사위원
 "문화유산 보존과 평화" 에세이(아시아 보존 제3권)("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Peace" (Asia Conserved Volume III))에서 발췌

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은 민간 분야 및 개인-기관 협력 이니셔티브가 해당 지역 건축물, 장소 및 자산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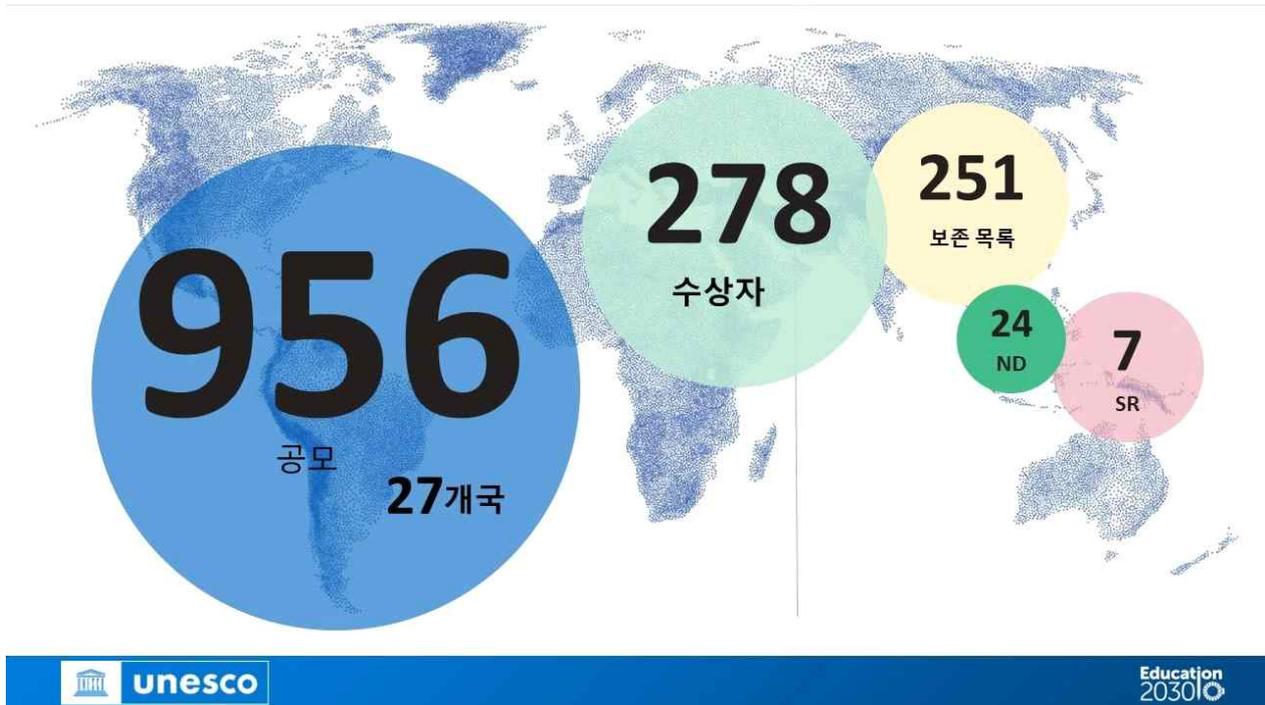


Hanok Regeneration
 in Bukchon

2009 Award of Distinction

서울 북촌 가꾸기 사업

2009년 유네스코 아태 문화유산 보존상 우수상(Award of Distinction) 수상



공공 지원 주택에서 궁궐 건축물, 수중 고고학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서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p>2015 선외 가작상</p> <p>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YHA Mei Ho House</p>	<p>2009 우수상</p> <p>호주 뉴사우스웨일즈, M24 Midget 잠수함 난파선</p>
<p>2016 장려상</p> <p>파키스탄 라호르, 사히 함맘</p>	<p>2012 최우수상</p> <p>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음바루 니앙</p>



2017 최우수상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BLUE HOUSE CLUSTER



2013 최우수상
태국, 왓 프라유라윙사왓(WAT PRAYURAWONGSAWAS)

문화유산을 보호하면 상호 이해와 사회
결속력이 증진된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 분쟁이 줄어든다.



문화유산 보존상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보존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사회 결속력을 높이고 평화에 기여하는지 보여준다.





“우리 고유문화와 역사,
우리가 다른 이에게 받은 도움을 아는 것과
다른 이의 역사를 아는 것은
포퓰리즘을 살찌우는
문화적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다.”

오드리 아줄레(Ms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2018년 5월 22일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개막식 연설 중에서



“잘못된 역사,
잘못된 교육,
잘못된 외교 관계.”

태국 역사가 Charnvit Kasetsiri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공유 역사 프로젝트

양질의 역사 교육은 개인이자, 공동체이자, 국가이자, 위대한 역내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뿌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강력한 기반을 만들 것이다.
- 수린 피츠완(Dr. Surin Pitsuwan) 전 ASEAN 사무총장-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
Funds-in-Trust

한국
신탁 기금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 **역사**는 학생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이해하고 지성을 함양하게 해야 한다.
- **학교**는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해야 한다.
- **역사 교육**은 이웃 국가 간 명확하고 진정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ASEAN 공동체**는 역내 자유 무역을 향한 길이 동남아 국가 간 사회적 문화적 상호 작용을 증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는 2015-19 지침과 정책에서 **역사 교육 개혁**의 필요성으로 통합되었다.





	
<p>1과 사람과 장소</p> <p>이 과에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동남아 사람 간 상호 작용과 다양한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p>	<p>2과 권력의 초기 중심</p> <p>이 과에서는 개별 왕국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다. 이러한 고대 정치가 상호 무엇을 공유했는지 알아본다.</p>
	
<p>3과 쌀과 향신료</p> <p>이는 동남아 사람들 일상의 일부이다. 대다수 아동은 쌀과 향신료를 주식으로 섭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식 이상의 가치가 있다.</p>	<p>4과 동남아시아 그려보기</p> <p>이 과는 권역으로써 동남아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길을 찾아왔는지, 그와 동시에 어떻게 공유 경험을 위한 공동의 기반을 형성해왔는지 탐색한다.</p>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 **파트너십:** UNESCO, SEAMEO, ANU, APCEIU
- **이해관계자:** 교육부, 교사 양성 기관, 학교, 역사학자 네트워크, 대학교
- **결과물:** 교사 지침 및 중등학교 교과서 자료의 4개 주제 과정 및 26개 모델 강의 계획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성과

- 7개국 참여
- 19개 시범학교
- 교사 53명 교육
- 학생 1,650명 참여
- 26개 강의 중 20개 강의(역사, 사회 학습, 영어, 언어 등)를 교실에서 시연함.
- **부산물:** 공유 역사, 박물관 견학, 예술 및 음식 전시회, 아동 도서를 위한 학생 개발 모바일 앱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국제적 지지

- 제38차 SEAMEO 고위관리회의(2014)
- 제48차 SEAMEO 평의회 컨퍼런스(2015)
- 제11차 ASEAN 교육 고위급 회의(2017)
- ASEAN 교육부 장관 국민투표
- ASEAN 5개년 교육 실행 계획(2016~2020)
- 캄보디아, 2017년부터 중등 교육 과정에 동남아시아 공유 역사 내용 포함 성공
- 브루나이와 태국, 국가 수준의 교사 교육에 이러한 지침과 자료 사용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lore UNESCO English Connection

Convention Lists Themes Safeguarding Actors Country

UNESCO > Culture > Intangible Heritage > Lists >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한국 전통 레슬링(씨름) (Ssirum/Ssireum)

2018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 강상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보존지도국, 2013 U.S. of Korea, 2013

© 한국 씨름 협회 / Association

© 한국 씨름 협회 / Association



© 강상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보존지도국, 2017



4 양질의 교육



목표 4.7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SDG 4: 목표 4.7

모든 학생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 시민의식과 문화 다양성 이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고취를 통해서 가능하다.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ICH) 및 교육: 유네스코 글로벌 프로그램





목표:
살아있는 유산(ICH, 무형 문화유산)은 교육 분야에서 교육적 접근법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며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



파키스탄 토착민 전통 자수 패턴을 활용한 기하학 교습



교실로 찾아온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규 교육

(2013년~현재)

- 한국 포함 아태지역 10개 이상 시범국에서의 경험과 강의 계획을 종합.
- 학교 안팎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습.
- 교사 및 학생에게 지역 사회의 지혜/살아있는 유산에 지속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고취.

베트남 전통 악기 (Muang Gong)를 활용한 물리학 교습



Then you turn the gong to this direction. This will use one of your finger to touch the gong.

(cc) UNESCO




아태지역 교사 및 교육자를 위한 결과물

- 교육자를 위한 역내 지침
- 기초 강의 계획 및 활동 자원 키트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APCEIU) 개최 **교사용 온라인 코스**

The screenshot shows the UNESCO APCEIU online course page. On the left is a resource kit cover titled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A Resource Kit'. In the center is a student writing in a notebook with the text 'Learning with Intangible Heritage for a Sustainable Future: Guidelines for Educators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the right is the GCED ONLINE CAMPUS interface showing course details for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including application and learning dates, course ID, and a 100% free fee.

This page features a case study titled 'Interviewing local tradespersons (Pakistan)'. It includes a photo of students working on a project and a quote from a student: 'My friend's grandfather is a master of making musical instruments. I'd love to see it and hear him play.' Below the case study is the title '교실로 찾아온 아태지역 무형유산: 자원 키트' and the text '무료 다운로드 영어 | 러시아어 | 11월'. The page also includes the UNESCO APCEIU logo and the 'Education 2030' logo.



교실로 찾아온 아태지역 무형유산: GCED
온라인 캠퍼스 코스

무료 코스이며 수료증 취득 가능
가능 언어 **영어** | **한국어**



The composite image includes a woman at a desk, a course structure diagram with four modules (Module 1 to 4) and a '강의 계획' (Lecture Plan) box, and a 'Mastery Class' scene with students and a teacher.

유네스코 방콕 2023년 프로젝트 활동



1. 아태 강의 계획 공모전 (2023년 6월~9월)
 - 수상자에게 해당 학교에서 강의 계획을 시연할 수 있는 상금 수여.
2. 아태 지역의 ICH와 함께하는 모범 강의 계획을 위한 정보 처리 기관
3. 태국어와 한국어 번역을 통해 온라인 코스에 대한 접근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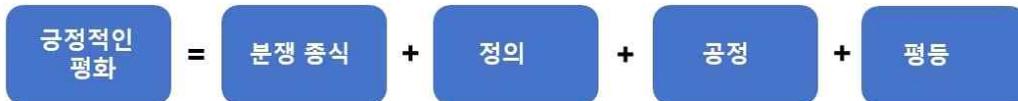
평화를 위한 협력(T4P)

만화를 통해
청년층에 접근



평화를 위한 협력 - 콘셉트

유네스코 방콕의 이니셔티브:
아태지역에서 '긍정적인 평화' 강화



지속 가능한 평화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편견과 불평등에서 기인한 분쟁과 폭력을 해소한다.



평화를 위한 협력(T4P) 사일런트 만화 프로젝트(Silent Manga Project)



- 사일런트 만화 온라인 카탈로그
- 교사용 안내 자료 (先生の手引き)
- 인포그래픽
- 순회 전시



Exploring Boundaries of Global Citizenship



감사합니다

Feng JING, Ph.D.
유네스코 방콕, 문화 부서장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Bangkok)
f.jing@unesco.org

bangkok.unesco.org/theme/culture





Overcoming Regional Conflicts through Cultural Divers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Feng 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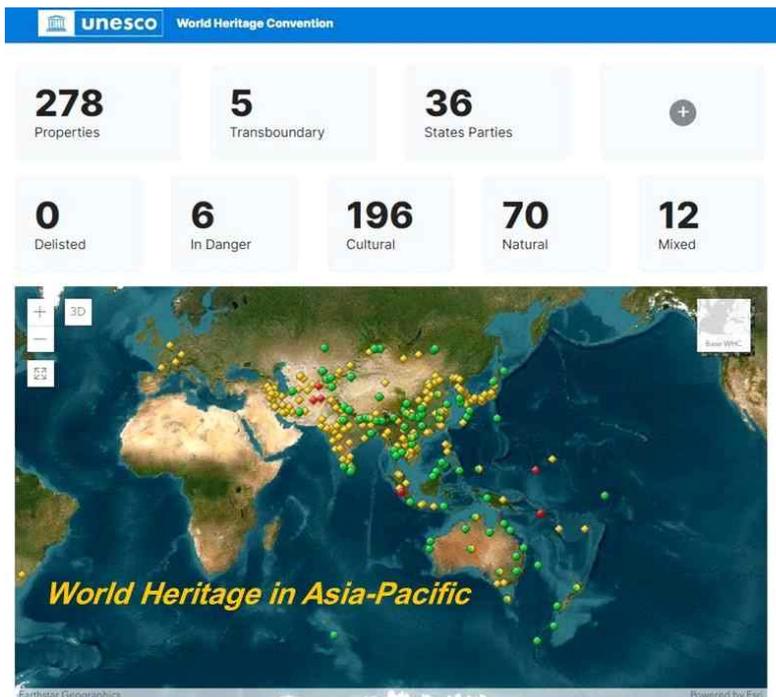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Bangk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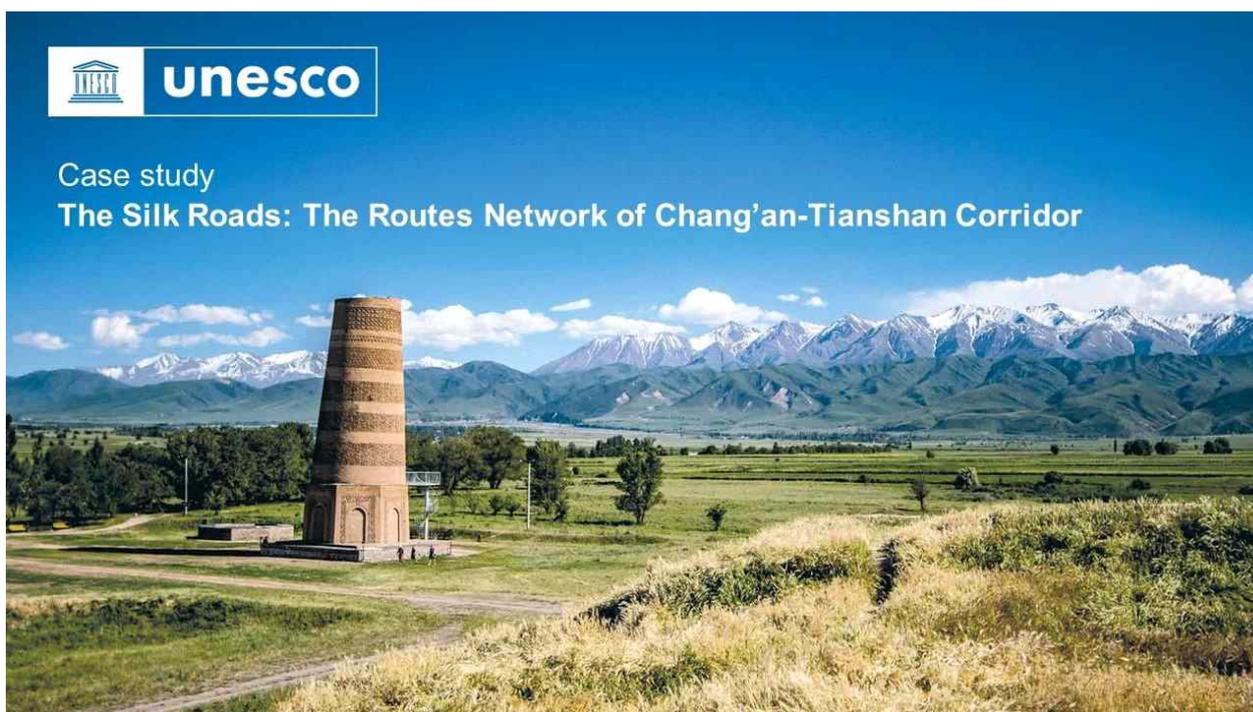
Role of heritage in peace-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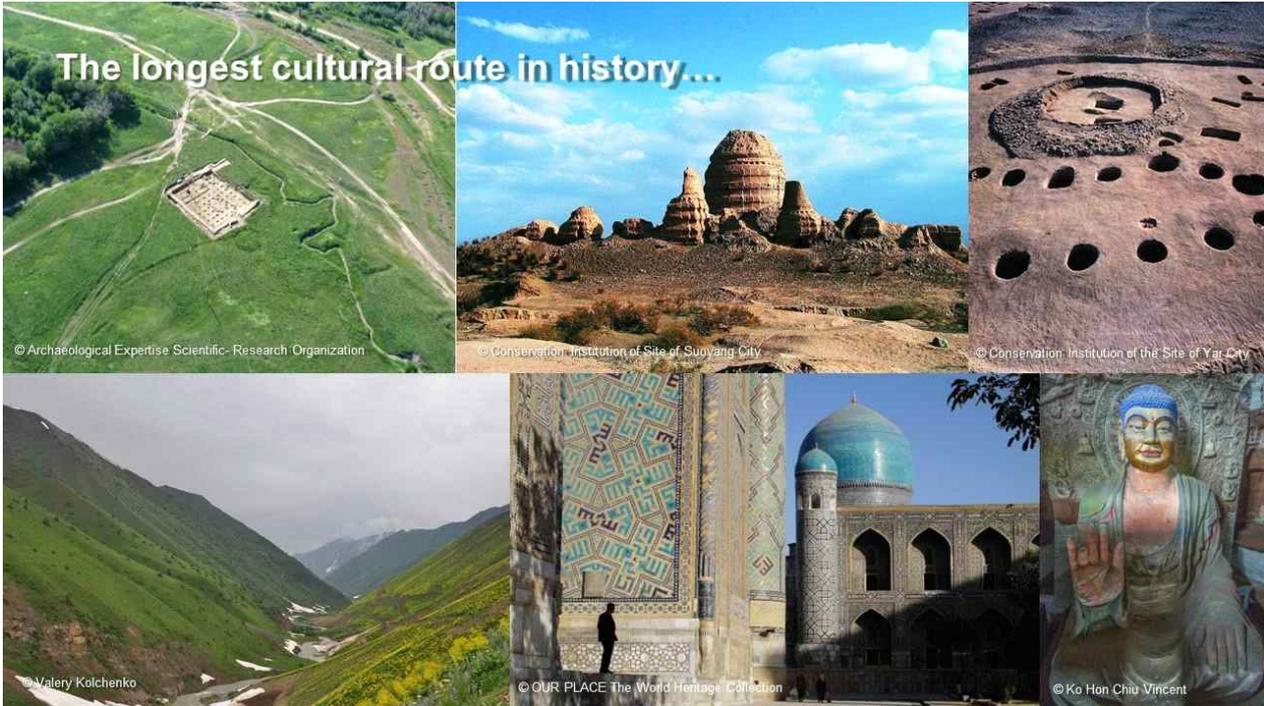


- **Heritage as a channel for peace**
 - Transboundary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the Silk Roads
- **Heritage as a dialogue for peace**
 - 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project
- **Heritage as an expression of peace**
 - Examples of joint nomin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Living Heritage and Education global programme
 - Together for Peace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as a mechanism for global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bstantial exchanges in trade, religions, scientific & technological advances

Global manifestations in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 Trade
- Religions: Buddhism, Judaism, Islam, Nestorian Christianity, Zoroastrianism and Manicheanism
-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paper-making knowledge, printing, gunpowder, cast iron, crossbow, magnetic compass, porcelain, etc.



© Conservation Institution of the Site of Yar City



Promo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wards the first serial and transnational inscription – *The process*

- Creation of an Intergovernmental Coordinating Committee
- Now includes **sixtee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one observer
 - Afghanistan, Azerbaijan, China, India, Iran, Japan, Kazakhstan, Kyrgyzstan, Nepal, Pakistan, the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Turkey, Turkmenistan and Uzbekistan, with Bhutan as an observer
- Demonstrates a common value framework, a functioning cooperation mechanism and the proper upstream guidance





What role does cultural heritage play in creating peaceful societies, therefore in building resilient societies?

“Peaceful societies are resilient societies. It has been witnessed time and again, across the globe, that the societies that better absorb the shocks of natural disasters and economic downturn tend to be those which have less conflict.”

*“While histories are layered and complex, it can be argu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protection, conservation,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contribute to creating opportunities for dialogue within and between communities and thereby to creating peaceful societies.**”*

Gurmeet Sangha Rai

Jury Member of 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From the essa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Peace” (Asia Conserved Volume III)

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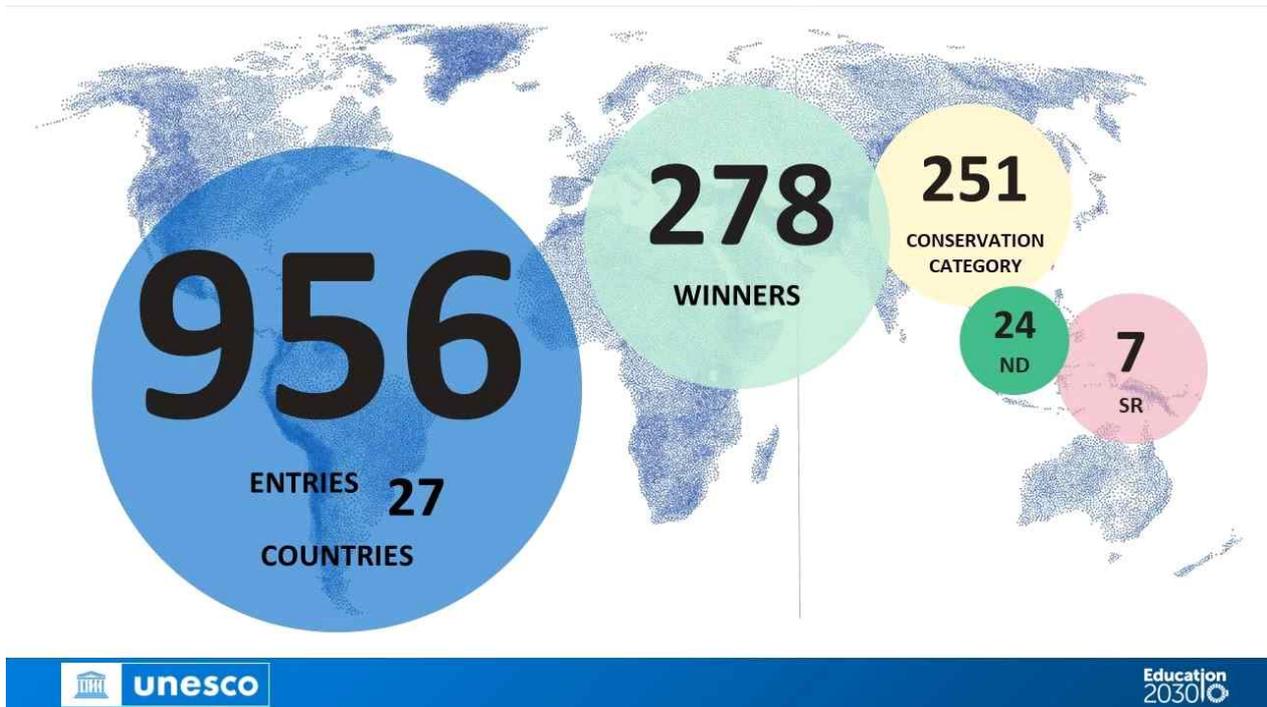
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recognize the achievement of the **private sector and public-private initiatives** in successfully conserving or restoring structures, places and properties of heritage value in the region.



Hanok Regeneration
in Bukchon

2009 Award of Distinction

Hanok Regeneration in Bukchon, Korea
2009 Award of Distinction





The Award winners span a **wide range of projects** from social housing to palace complexes to underwater archaeology sites.



2015 Honourable Mention

YHA Mei Ho House, HKSAR,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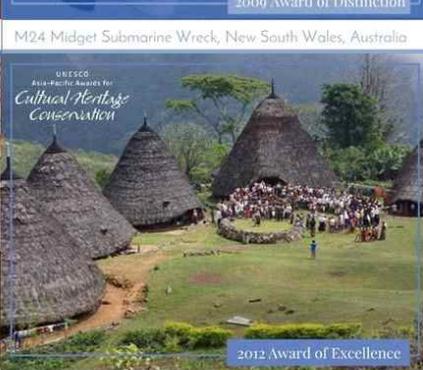
2009 Award of Distinction

M24 Midget Submarine Wreck, New South Wales, Australia



2016 Award of Merit

Shahi Hammam, Lahore, Pakistan



2012 Award of Excellence

Mbaru Niang, Flores Island, Indonesia



2017 AWARD OF EXCELLENCE, BLUE HOUSE CLUSTER, HONG KONG SAR, CHINA



2013 AWARD OF EXCELLENCE, WAT PRAYURAWONGSAWAS, THAIL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CREASES
MUTUAL UNDERSTANDING
AND SOCIAL COHESION.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REDUCES CONFLICT.



The Awards programme highlights how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can provide a platform to bring people together, thereby creating greater social cohesion and contributing to peace.**





unesco

“Knowing our own culture, our history and what it owes to others, knowing other people’s history allows us to fight the feeling of cultural insecurity which feeds populism.”

Ms Audrey Azoulay, Director-General of UNESCO
From the opening speech on the occasion of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22 May 2018



unesco

**“Bad history,
bad education,
bad neighbour relations.”**

Charnvit Kasetsiri, Thai historian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Better history education will create a strong base to understand where we came from and to guide us to where we are going, as individuals, as communities, as nations, and as a greater sub-region."
 – Dr. Surin Pitsuwan, Former Secretary-General of ASEAN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Korea
Funds-in-Trust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 **Histories** should give students **better understanding** of diversity and intellectual advancement toward becoming 'Global Citizen'.
- **School** should **shape a person's worldview**.
- **History education** should build **clear and true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 **ASEAN Community** realized that road toward regional free trades would result in increasing social and cultural interaction amo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 integrated the need to **reform history teaching** in their 2015-19 roadmap and policies.



	
<p>Unit 1 People and Places</p> <p>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eoples of South-East Asia and their various environments across time and space.</p>	<p>Unit 2 Early Centres of Power</p> <p>attempts to move away from the history of individual kingdoms. Rather, it examines what these ancient polities shared in common with each other.</p>
	
<p>Unit 3 Rice and Spice</p> <p>are part of everyone's life in South-East Asia. Most children consume them every day as their main staples. Yet, there is much more to them than their gastronomic value.</p>	<p>Unit 4 Envisioning Southeast Asia</p> <p>explores how, as a region, South-East Asia has sought ways to interact with the world while at the same time creating common grounds for shared experiences.</p>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 **Partnership:** UNESCO, SEAMEO, ANU, APCEIU
- **Stakeholders:** Ministries of Education, teacher training institutes, schools, network of historians, universities
- **Output:** Teacher's guide and textbook materials for secondary schools, with 4 thematic units and 26 model lesson plans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Outcomes

- 7 participating countries
- 19 pilot schools
- 53 educators trained
- Over 1650 participating students
- 20 out of 26 lessons tested in classes, such as History, Social Studies, English, Languages, etc.
- **Side products:** Student-developed mobile applications for shared histories, museum excursions, art and food exhibitions, children's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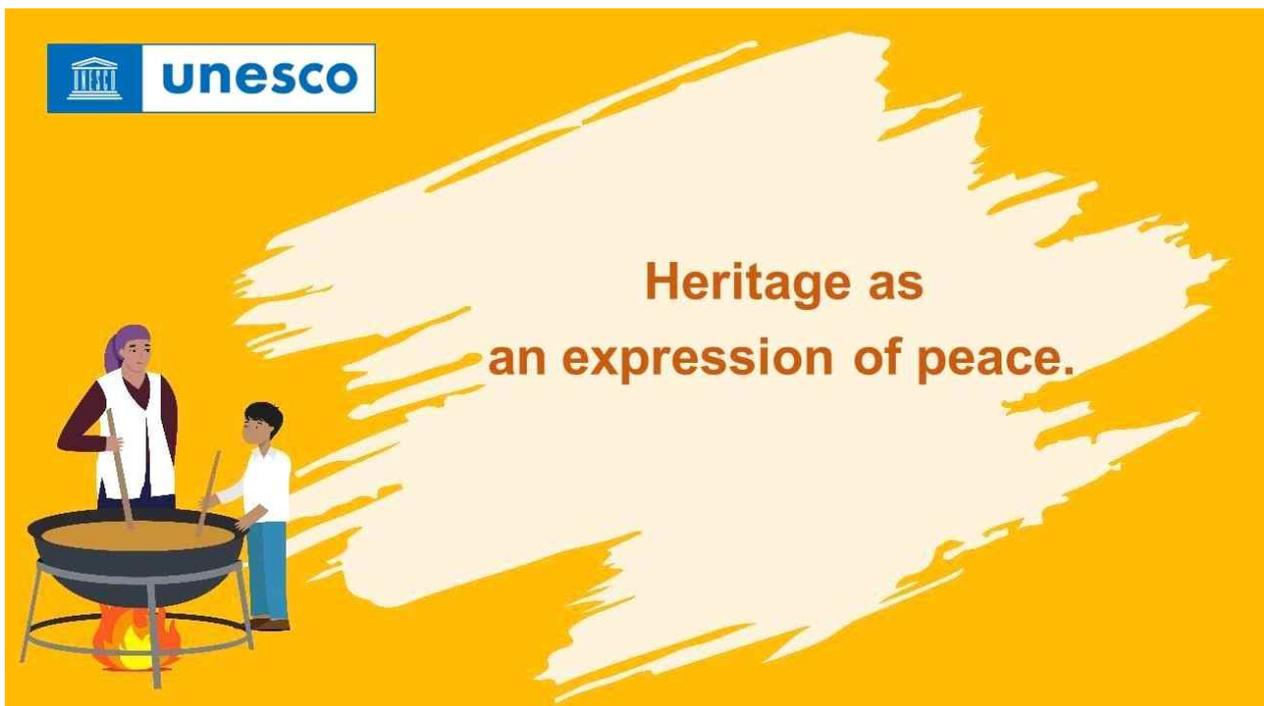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SharedHistories.asia

International endorsement

- 38th SEAMEO High Officials Meeting (2014)
- 48th SEAMEO Council Conference (2015)
- 11th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ducation (2017)
- Referendum of ASEAN Ministers of Education
- 5-year Education Action Plan of ASEAN (2016-20)
- Cambodia successfully included the content of Shared Histories of South-East Asia in its secondary school curriculum since 2017.
- Brunei Darussalam and Thailand have organized several national-level teacher's trainings on using these guide and material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lore UNESCO English Connection

Convention Lists Themes Safeguarding Actors Country

UNESCO > Culture > Intangible Heritage > Lists >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Inscribed in **November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 KANG Sang Ho / Korean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DPR of Korea, 2013

© Korean Ssireum Association

© Korean Ssireum Association

unesco

© KANG Sang Ho / Korean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DPR of Korea, 2017



4 QUALITY EDUCATION



TARGET 4.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SDG 4: Target 4.7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Living Heritage and Education: A UNESCO Global Programme





GOAL:
To use Living Heritage (ICH) as teaching approaches and resources in education to build **human assets that will stay in and benefit their local communities.**



Teaching geometry using **Pakistani** indigenous embroidery patterns



Teaching physics using traditional **Vietnamese** Muang Gong music instrument



Bringing **Living Heritage** to **Classroom** in Asia-Pacific

FORMAL EDUCATION

(2013-present)

- Gather experiences and lesson plans from over 10 pilo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Republic of Korea.
- Present innovative ways to teach in and outside schools.
- Raise awareness for teachers and students that sustainability is rooted in local wisdom / living heritage.

(cc) UNESCO



Outputs for Asia-Pacific teachers and educators

- A Regional Guide for Educators
- A Resource Kit of 101 lesson plans and activities
- An online course for teachers hosted by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The collage features the following elements:

- Resource Kit Cover:** Titled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A Resource Kit', it shows an illustration of a woman in traditional attire.
- Student Project:** A photograph of a young girl in a white school uniform with a yellow sash, focused on her work.
- GCED Online Campus:** A screenshot of the website showing the course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with details like application dates (09-22-2022 to 12-31-2024) and a 100% free fee.
- Logos:** UNESCO and Education 2030 logos are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bottom.

This page provides a detailed look at the resource kit's content:

- Strengthening dialogue within communities and between generations:** A text box explaining how integrating living heritage into formal education can enhance exchanges between schools and their surrounding communities.
- Interviewing local tradespersons (Pakistan):** A section describing a social studies assignment where students interviewed community members like carpenters and masons.
- Quote:** A student's reflection: "My friend's grandfather is a master of making musical instruments. I definitely need to go and learn from him."
- Resource Kit Cover:** The same cover as seen in the top image, featuring the UNESCO and APCEIU logos.
- Download Information:** A call to action for a 'FREE DOWNLOAD' in [ENGLISH](#), [RUSSIAN](#), and [Urdu](#).
- Logos:** UNESCO and Education 2030 logos are at the bottom.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A GCED Online Campus Course**

FREE AND EARN A CERTIFICATE!

AVAILABLE IN [ENGLISH](#) | ไทย | [KOREAN](#)



Project activities in 2023 by UNESCO Bangkok



1. Asia-Pacific Lesson Plan Contest (June-September 2023)

- Winners to receive seed funds to test their lesson plans in their own schools.

2. Clearinghouse for exemplary lesson plans with ICH across Asia-Pacific region

3. Expand the access to the online course by translating it to Thai and Korean languages





Together for Peace (T4P)

REACHING OUT TO YOUNG PEOPLE THROUGH COMICS



Together for Peace - Concept

UNESCO Bangkok's initiative:
Fostering 'positive peace' in Asia-Pacific



Sustainable peace can help reducing economic and social disparity, and solve conflicts and violence from prejudice and inequality.



Together for Peace (T4P) Silent Manga Project



- Online catalogue of silent manga
- Teacher's companion (先生の手引き)
- Infographics
- Travelling exhibition



Exploring Boundaries of Global Citizenship



Thank you

Feng JING, Ph.D.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Bangkok
f.jing@unesc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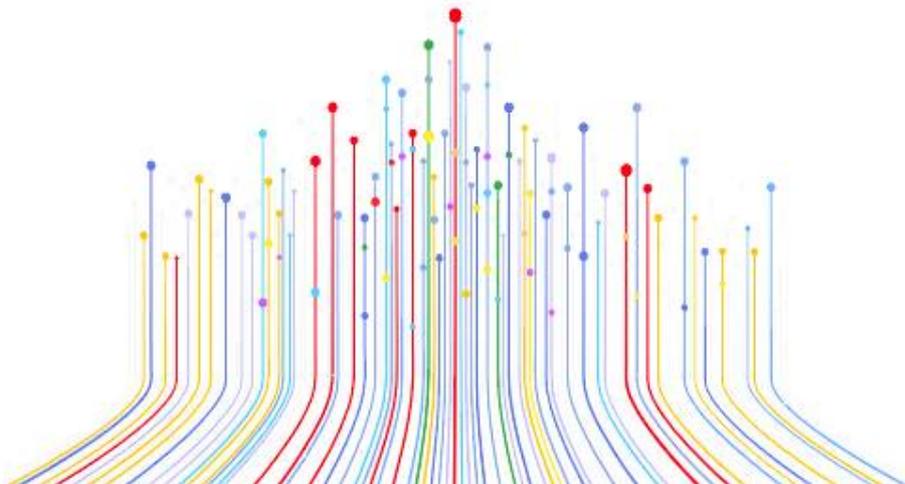
bangkok.unesco.org/theme/culture



주제발표 3
‘부산발 해양인문학을 통한 평화공존의 모색’

Presentation 3
‘Highlighting the Impact of Culture and
Social Practices on Peacebuilding initiated by Busan’

남송우 (고신대 석좌교수)
Nam Song-woo (Emeritus Professor Kosin University)



부산발 해양인문학을 통한 평화 공존의 모색

-바다에서 길을 찾는다

남송우(고신대 석좌교수)

들어서기

- ▶ 사회발전 과정에서 문화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인식과 그 실천은 미약함
- ▶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문화의 역할과 가치가 새롭게 논의되고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문화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평화
- ▶ 부산지역 문화가 그 동안 추구해온 문화정체성을 통해 평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함

부산발 평화가치의 발신

- ▶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끝에 자리하면서 바다로 나아가는 출발의 공간
- ▶ 부산지역 문화의 정체성은 해양성을 토대로 형성
- ▶ 해양성은 열린 개방성을 토대로 혼종성과 역동적인 생명성을 지님
- ▶ 바다가 지니는 원형적 이미지와 현상을 통해서 해양인문학적 사유를 통한 평화적 담론 창출 가능

(1) 육지 중심의 사유에서 바다 중심의 사유로

- ▶ 지금까지 인류는 육지를 중심으로 인류 문화사를 창조
- ▶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류의 삶의 공간에 대한 위기 상황
- ▶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마지막 영토인 해양에 대한 희망
- ▶ 천지인(天地人)의 사유체계에서 이제는 천지해인(天地海人)의 사유체계로 인식의 틀을 바꾸어야

(2) 바다에서 건져올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인문적 사유

- ▶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 공존과 열림, 순환과 교류, 그리고 평등의 토대를 모색해 낼 수 있음
- ▶ 경쟁과 갈등과 전쟁, 경계와 불통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문화의 가치
- ▶ 바다를 새롭게 인간과의 사이에 중요한 관계론적 존재론으로 설정해야

해양문화의 특성

- ▶ 첫째는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
- ▶ 둘째는 공존성
- ▶ 셋째는 교류성
- ▶ 넷째는 개방성

㉠ 생명의 시원과 생명재생의 공간

- ▶ 생명의 시원이 바다로부터 비롯
- ▶ 해양을 생명본능의 대상물이자 힘과 지혜의 상징이자 담지자로 여김
- ▶ 바다는 육지에서 삶을 주체하고 있는 인간의 아픔과 슬픔, 절망을 치유하는 생명재생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음
- ▶ 바다가 지닌 원형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육지 중심의 사유가 파생한 비생명적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 월경하는 공존공영의 공간

- ▶ 바다를 통한 인류와 물자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월경성(越境性)
- ▶ 바다가 각국의 위치에 따라 해면의 소유나 영유를 하고 있기는 하나 육지와 비교하면 바다는 많은 공간을 공유의 영역인 공해로 남겨두고 있음
- ▶ 육지를 중심으로 살면서 상실한 공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켜나간다면, 해양문화의 정체성을 평화공존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음

㉔ 해수의 순환과 교류의 공간

- ▶ 지구에는 대기의 순환이 있고, 바다에는 해수의 순환이 있음
- ▶ 오대양에서 생성되어 흐르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해류의 흐름은 해안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순환하는 특성을 가짐
- ▶ 해류가 지닌 순환과 교류의 특성은 땅을 경계지워 국경을 만들고 갈등해온 인류의 갈등을 소통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유의 터를 마련해 줌

㉕ 열림을 통한 개방성과 다양성

- ▶ 바다의 길은 자연이 만들어준 것으로, 이런 천연적 개방성이야말로 그 누구도 가로막거나 끊어 없애버릴 수 없는 개방성을 지님
- ▶ 연해(沿海), 환해(環海), 연해(連海)에 의해 성립된 해역세계는 육지와는 달리 다원성, 다양성, 포괄성을 지닌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세계를 형성
- ▶ 다양하고 개방적인 항구도시를 가능하게 한 근원적 토대는 바다가 지닌 열린 공간에서 비롯
- ▶ 이런 열림이란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는 끊임없이 세계를 열어 교류를 통한 평화를 현실화하는 문화가치로 활용할 수 있음

맺으먼서(1)

- ▶ 역사적으로 400여년 전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왕래한 기록들은 부산은 바다를 통해 다른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진 교두보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 줌
- ▶ 조선통신사가 바다를 통해 왕래하던 200여년 간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지속되었기에 그 평화의 길을 다시 열어보겠다는 것이 부산문화재단이 지향한 신조선통신사가 지향한 가치
- ▶ 한일 간의 조선통신사가 지녔던 평화 정신을 현재화하여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다시 써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 한일 간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맺으먼서(2)

- ▶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통신사기록 유산은 조선통신사의 평화정신을 세계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할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음
- ▶ 평화 정신의 실현이 바다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바다가 지닌 열림과 교류와 공존과 생명의 원형적 가치는 신조선통신사가 지향하는 평화의 문화적 가치와 함께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Seeking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marine humanities from Busan

- Find the way in the sea

SONG-WOO NAM (a chair-professor at Kosin University)

Introduction

- ▶ Although the importance of cultural power is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social development,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its fundamental values are still weak.
- ▶ For the future of the global village where humanity can coexist peacefully, the role and value of culture need to be newly discussed and highlighted.
- ▶ Peace is the value that the most urgently needed culture should pursue in this era.
- ▶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direction of peace through the cultural identity that the culture of Busan has pursued so far.

Sending of the peace value from Busan

- ▶ Busan is geopolitically located at the end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 starting place for reaching the sea.
 - ▶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Busan area is formed based on the oceanic nature.
 - ▶ Being oceanic has hybridity and dynamic vitality based on openness.
 - ▶ Through archetypal images and phenomena of the sea, it is possible to create a peaceful discourse for marine humanistic thoughts.
- 

(1) From land-centered thoughts to sea-centered thoughts

- ▶ Until now, humanity has created human cultural history around the land.
 - ▶ Crisis for the living space of humanity due to ecosystem destruction.
 - ▶ Hope for the ocean, the last territory covering more than 70% of the Earth's surface area.
 - ▶ It is time to change the framework of perception from the thought system of the Heaven-Earth-Human to the thought system of Heaven-Earth-Sea-Human.
- 

(2) Humanistic thoughts for peaceful coexistence from the sea

- ▶ From the archetypal image of the sea, we could seek the foundations of life and peace, coexistence and openness, circulation and exchange, and equality.
 - ▶ The value of a new marine culture, to heal the problems of competition, conflict, war, borders, and discord.
 - ▶ The sea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s an essential relational ontology between humans.
- 

Characteristics of Marine Culture

- ▶ First, The nature and beauty of life
 - ▶ Second, Coexistence
 - ▶ Third, Exchange
 - ▶ Fourth, Openness
- 

㉑ A space of the origin and regeneration

of life

- ▶ The origin of life comes from the sea.
 - ▶ Considering the ocean as an object of life instinct, a symbol of power and wisdom, and a bearer.
 - ▶ The sea is positioned as a space of life regeneration that heals the pain, sorrow, and despair of humans who control life on land.
 - ▶ The prototypical and symbolic images of the sea are alternatives to overcoming non-living phenomena derived from land-centered thoughts.
- 

㉒ A space of transboundary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 ▶ The biggest feature of the movement of humanity and supplies through the sea is its transboundary nature.
 - ▶ Although the sea is owned or possessed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each country, compared to the land, the sea leaves a lot of space as a common area, the international water.
 - ▶ The identity of marine culture can be used as the founda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by spreading the cultural value that serves as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lost coexistence while living on land.
- 

© A space for circulation and exchange of seawater

- ▶ The earth has an atmospheric cycle, and the ocean has a seawater cycle.
- ▶ The flow of various ocean currents created and flowing in the five oceans not only forms various coastal ecosystems but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exchanging and circulating with each other.
- ▶ The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 and exchange of the ocean currents provide a ground for reasons through communication to overcome the conflicts between humanity that have created borders by delimiting the land.



④ Openness and diversity

- ▶ The path of the sea was created by nature, and this natural openness has an openness that no one can block or cut off.
- ▶ Unlike the land, the marine world established by the coastal waters, the surrounding seas, and the littoral seas forms an open and diverse cultural world with pluralism, diversity, and inclusiveness.
- ▶ The fundamental foundation for enabling a diverse and open port city comes from the open space of the sea.
- ▶ This archetypal image of the open sea can be used as a cultural value to realize peace through exchanges by constantly opening the world.



Conclusion (1)

- ▶ Historically, the records of Joseon Tongsinsa(Korean mission to Japan)'s travel to and from Japan over 400 years ago show that Busan has served as a bridgehead for exchanges with other regions through the sea.
 - ▶ Since peace continued between Korea and Japan for more than 200 years when the Joseon Tongsinsa traveled by sea, the value of the New Joseon Tongsinsa pursued by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was to reopen the path of peace.
 - ▶ The manifestation of the will to rewrite a new history of peace by presenting the spirit of peace possessed by the Joseon Tongsinsa between Korea and Japan led to the joint UNESCO registration of records on Joseon Tongsinsa between Korea and Japan.
- 

Conclusion (2)

- ▶ The documentary heritage of Joseon Tongsinsa, which is now registered with UNESCO, is becoming a new task in this era to spread the peaceful spirit of Joseon Tongsinsa to all the people of the world.
 - ▶ In that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peace was achieved through the sea, the archetypal value of openness, exchange, coexistence, and life of the sea is at the point of being newly discussed along with the cultural value of peace that the New Joseon Tongsinsa pursues.
- 

부산발 해양인문학을 통한 평화공존의 모색

-바다에서 길을 찾는다

남송우

들어서기

지금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발전방향과 모델을 추진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보다 나은 평화롭고 행복한 문화적 삶을 지향함이다.

지난 세기는 물질주의 가치를 앞세운 성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근대성의 추구가 삶의 주요 목표였다. 그러나 21세기에서는 탈(脫)물질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의 역할이 갈수록 요청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모든 세계가 기존의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문화적 매력(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나아가 모바일 혁명에 따른 문화적 확산 과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문화산업의 육성과 문화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인류 문화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지구촌 국가들에서 경제적 선진국들과 정치적 선진국들의 선진국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나라들의 선진화를 추동한 근원적인 힘은 결국 문화력이었다는 점에 수렴되었다. 이렇게 사회발전 과정에서 문화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인식과 그 실천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이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비문화적이고 반인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을 제안하고 그 실현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류문화의 다양성 추구 속에서 문화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문화의 역할과 가치가 새롭게 논의되고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화의 가치를 논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문화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평화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산지역이 국제사회를 향해 제안할 수 있는 평화의 방향성을, 부산지역 문화가 그 동안 추구해온 문화정체성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서문기, 「문화적 가치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 논총』 29집 2호 2015, P. 80

기존의 평화론

평화 연구의 대가인 볼딩(Boulding)은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제목에 평화(peace)가 포함되어 있는 영문 논문을 분석한 결과, 40여 개의 서로 다른 의미로 평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²⁾. 현실에서도 평화는 수준(개인, 국가, 세계), 방향(대내, 대외), 지속성(불안정, 안정), 조건(힘, 민주주의, 경제), 형태(소극적, 적극적), 범위(지역, 세계) 등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양한 기원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평화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 유럽을 중심으로 평화연구가 확산되면서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다. 갈통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전쟁, 사형과 같은 ‘직접적(물리적) 폭력,’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인 ‘문화적 폭력’ 등 폭력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갈통은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규정하였으며, 평화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 발전하면서 ‘적극적 평화’ 개념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확대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평화문화(culture of peace)’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구상은 1989년 코트디부아르의 야무수크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인간 마음속의 평화에 관한 야무수크로 선언(Yamou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en)”은 생명에 대한 존중, 자유, 정의, 연대, 등으로써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세워 나가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이후 평화문화 프로젝트가 UNESCO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되고, 1999년 국제연합에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평화문화는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UNESCO와 평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평화문화 개념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³⁾.

평화문화는 그 개념이 너무 방대하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화문화 개념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보다 행복한 인간의 삶에 기초해 사회,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평화연구에서 제시한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UN 등을 통해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그리고 개인의 참여를 장려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문화와 유사하게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에 비해 평화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평화문화 개념의 학문적, 정책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홍용표, 「평화문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문화와 정치』 제5권 제2호, 2018, pp. 5-30

3) 평화문화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UNESCO(1995; 1996), Adams(2000), Boulding(2000),

de Rivera(2004; 2009), Basabe and Valencia(2007), Fry and Miklikowska(2012) 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문화 논의

평화문화 개념 확립에 큰 역할을 한 볼딩(Boulding)은 평화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지향적” 개념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인식, 환경, 행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평화도 문화의 영향을 받는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평화문화 구상의 시발점이 된 ‘야무수크로 선언’ 역시 폭력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 숙명적으로 폭력적이지도 않다”는 ‘폭력에 관한 세비야 선언’을 지지하며, 세계 곳곳의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⁴⁾. 평화문화론자들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전쟁을 만든 바로 그 종(species)이 평화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2년 개최된 UNESCO의 ‘평화문화에 대한 국제 포럼’은 평화는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평화문화는 인간관계에 내재된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실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갈등이 폭력적 파괴로 불거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후 이러한 인식은 역사 이래 문명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전쟁문화(culture of war)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문화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평화문화 개념은 UN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99년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과 ‘실행계획’이 UN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우선 ‘선언’은 평화문화가 ① 교육,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폭력의 중단과 비폭력의 실천, ② 인권과 자유, 발전권, 남녀평등의 증진, ③ 갈등의 평화적 해결, ④ 국가의 주권, 영토적 통합 그리고 정치적 독립 등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 전통 그리고 행동과 생활양식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실행계획’은 평화문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8개 분야에서의 실천 목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선언은 전쟁의 양상과 빈도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은 “전쟁이 문화의 산물”이며, 따라서 “전쟁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갈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평화문화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있다. 평화문화는 “폭력적 경쟁을 공동목표를 향한 협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힘과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힘과 지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폭력의 제거와 대화 및 협력을 통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평화문화론자들도 힘의 정치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중요한 문제는 정치학자들과 정치 행위자들이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느냐이다. 여기에는 개념적으로는 우월적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방법, 정당성에 근거한 힘 또는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현실

4) 1986년 전 세계 20명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전쟁이 인간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는 “폭력에 관한 세비야 선언(Seville Statement on Violence)”을 발표하였다(www.culture-of-peace.info/vita/2011/seville2011.pdf). 이 선언은 인간이 동물적 본성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며, 폭력적 행동이 인간 본성에 유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비록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만, 자연 상태에서 같은 종 사이에 무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 파괴적인 집단적 싸움을 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선언은 전쟁의 양상과 빈도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은 “전쟁이 문화의 산물”이며, 따라서 “전쟁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에서는 이러한 힘의 사용 방법이 혼재되어 있다. 다만 평화문화 개념은 물리력의 사용보다는 “비폭력적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화문화 개념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개인의 차원, 즉 아래에서부터 증진시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교육을 통한 ‘자기 초월적(Self-transcendence) 가치’의 장려는 사람들의 평화 지향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는 어떤 행동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판단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에 대한 태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UN의 ‘평화문화 실행계획’이 타자에 대한 관용, 이해, 협력, 연대 등과 같은 자기 초월적 가치의 확산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문화는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우리’ 의식을 확장하는 사회 정체성을 육성함으로써 비폭력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집단 간의 갈등은, 영토 . 자원 . 특권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 .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정체성과 갈등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 욕구가 좌절되고 그러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개인 정체성 대신 집단 정체성을 택하여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가치와 정체성 문제는 평화를 위한 개인과 정부, 사회와 국가의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화적 접근에서 가치는 지도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있어 행동의 길잡이가 될 원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는 대중적 성향과 관념은 물론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념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문화 개념은 시민운동과 정부의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개별 집단의 목표가 아닌 상위목표를 추구할 경우 정체성 갈등이 줄어들고 협력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문화 개념은 민주주의, 양성평등, 인권,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동 등 현대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성을 높일 수 있고, 포괄적 목표를 제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평화 논의와 평화문화

실제 우리 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보다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평화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분단 극복 차원의 통일과 관련된 평화 논의와 분단관리 차원의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평화 논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이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평화는 통일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에서 평화는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

나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통일은 평화를 지향해야 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 역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통일평화’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평화통일’이라는 용어와 대비되기도 하는 통일평화에 대한 논의는 평화를 통일의 전 단계 또는 통일의 최종 단계로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통일을 완성한 이후에도 통일국가가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한다. 그래서 김병로는 통일평화를 “통일을 통해 미래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행위, 즉 평화조성(peace-making)과 평화구축(peace-building)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통일평화에서 평화는 “문화적, 구조적 평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의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통일평화 개념은 기존의 ‘평화 → 통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특히 평화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⁵⁾. 하지만 이 개념 역시 분단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평화 논의가 군사적 긴장 완화 또는 전쟁 방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전쟁의 경험, 북한 위협의 상시화, 국제 . 국내 정치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의 평화 문제에 대한 편협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냉전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⁶⁾. 남북의 분단과 대립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와 맞물려 한반도에 냉전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는 다시 남북한 사회 내부에 대립과 적대적 감정을 확산시키며 냉전문화로 고착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냉전문화의 중심축은 ‘반공주의’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의 경험과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위협의 확대 . 재생산 등으로 인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극도로 심화되었다. 아울러 6.25 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적 대립과 한반도 차원에서의 남북대립의 상호작용으로 그 결속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적’으로서 북한의 이미지와 함께 ‘친구’로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 친미주의의 형성과 확대 과정은 ‘반미주의’를 형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부들이 한미동맹과 친미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반작용 등으로 인해 반미주의가 민주화 운동세력들의 주요한 운동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반미주의는 1990년대의 냉전의 종식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특히 2002년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중화되어 갔다. 또한 반미의식의 확산은 ‘종미’ 논쟁을 불러왔고, 이는 ‘종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냉전문화를 뒷받침해온 ‘반공, 친미, 종북, 반미’ 의식은 단순히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이해나 동조를 배척하고 적개심을 표현하는 배타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문화는 한반도 문제와 미국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관용

5) 한국 학계에서 평화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기여하였다. 하영선(2002), 구갑우(2007), 서보혁 . 정육식(2016) 등 참조.

6) 김귀옥(2006, 74-75)은 냉전문화를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 분단구조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폭력에 기초한 문화로 정의하고, 이를 평화문화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과 이해보다는 이분법적 갈등과 불신의 가치를 확대시켜 왔다.

실제 한국의 평화문화 지수를 측정한 연구 결과도 한국의 평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 한국에서 『세계평화문화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UN과 UNESCO의 평화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평화문화를 ① 정치·군사 부문과 ② 사회·경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③ 구조적 측면과 ④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4개의 범주를 만들고, 각종 국제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74개국에 대한 평화문화지수를 측정한 것이다. 평화문화 수준을 지수화하여 측정한 세계 최초의 시도인 이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평화롭지 않은 나라들은 정치·군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평화 수준이 모두 낮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평화문화 개념이 제시하듯이, 평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쟁의 부재와 같은 대외적·군사적 차원의 평화 확보 못지않게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평등, 환경보호 등 “국내의 조건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체 평화 수준이 74개국 중 44위에 그쳤는데, 정치·군사적 부문(36위)보다 사회·경제적 부문(53위)에서의 순위가 오히려 낮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평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는 『세계평화문화지수』 대신 몇 가지 개념과 방법론을 변화시킨 『세계평화지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2009년 및 2015년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사회적 배제나 차별 영역에서의 평화수준이 삶의 질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현시적 위협인 북한 핵 문제해결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편-내편을 구분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못함은 물론 적으로까지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사회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핵 문제라는 외부적 위협이 해소되더라도 내부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대립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일을 이루기도 어렵겠지만, 혹시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시 편을 가르고 대결하는 불안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평화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문화를 통한 새로운 평화비전의 수립과 건설적 평화담론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에 기초한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의 해결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비평화적 가치를 평화적 가치로 전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부산발 평화가치의 발신

부산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끝에 자리하면서 바다로 나아가는 출발의 공간이다. 이에 부산지역 문화의 정체성은 해양성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해양성은 열린 개방성을 토대로 하기에 다양한 문화들이 들고나면서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혼종성의 모습을 보인다. 이 혼종성은 다양한 문화가치의 병립으로 역동적인 삶의 문화를 생성했다. 이러한 결과로 부산지역의 문화는 역동적

인 생명성을 지닌다. 부산지역이 지닌 생명성, 혼종성, 해양성은 근원적으로는 부산지역이 위치한 해양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점에서 바다가 지니는 원형적 이미지와 현상을 통해서 해양인문학적 사유를 통한 평화적 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육지 중심의 사유에서 바다 중심의 사유로

지금까지 인류는 육지를 중심으로 인류 문화사를 창조해왔다. 인간 문화사나 정신사가 대체로 육지 중심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 육지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에 주로 관심해왔다. 그 결과로 인간이 창조한 대부분의 문화적 결실은 거의 인간이 밟고 살아가고 있는 땅 위에 기초해 있었다. 인류의 삶이 육지 중심으로 펼쳐져온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제 육지의 자원은 갈수록 고갈되어가고 있고,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류의 삶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은 육지 중심의 삶에 대한 비극적 전망이 예견되기도 한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떠나는 긴 항해를 이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길고 긴 항해의 도정은 어디인가?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갈수록 해양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⁷⁾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하기까지 한순간도 해양을 벗어나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해양에 대한 인식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었다.

더욱이 비교적 일찍 공업화 사회에 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육상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기 때문에 왕왕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기대지 않으면 안 될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구의 생태계는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약탈적 개발을 또 다시 전개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지구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직은 개발여지를 많이 남겨둔 마지막 영토인 해양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⁸⁾

그러나 막연하게 바다로 눈을 돌린다고 현재 지구촌이 당면한 현안을 당장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지로부터 비롯된 오염은 바다도 오염시켜 사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자국 중심의 팽창 논리는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향해 영해와 도서분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로 눈을 돌리되, 육지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사유로 바다에 눈을 돌린다면, 인류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다. 육지에서 이루어졌던 전쟁과 갈등의 인류 문명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육지와는 다른 바다가 지닌 특성에서 연원하는 사유를 통해 육지에서 이루어졌던 오류를 넘어설 수 있는 사유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육지 중심의 사유에서 바다 중심의 사유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천지인(天地人)의 사유체계 속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천지해인(天地海人)의 사유체계로 인식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7) 곡금량, 김태만, 안승용, 최낙민 옮김.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90쪽.

8) 위의 책, p.91

(2) 바다에서 건져올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인문적 사유

인간은 이제 하늘과 땅과의 관계론적 존재론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과 바다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땅이 지닌 경계와 분열과 전쟁의 역사를 전환시킬 사유의 틀을 바다에서 건져올려야 한다.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 공존과 열림, 순환과 교류, 그리고 평등의 토대를 모색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통해 생명, 평화, 공존, 열림, 순환, 교류, 평등 등을 모색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류의 문화가 부산물로 남겨놓은 경쟁과 갈등과 전쟁, 경계와 불통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문화의 가치를 상정(想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지를 중심으로 계속되어 온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에 공헌한 바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갈등구조를 초극하지 않으면, 미래를 온전히 전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근원적인 인식사유의 전복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지녔던 하늘·땅·사람 중심의 세계인식 틀을 하늘·땅·바다·사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바다를 새롭게 인간과의 사이에 중요한 관계론적 존재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럴 때 바다는 새롭게 육지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육지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인류가 과제로 남겨놓은 현안을 초극할 수 있는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는 달리 말하면 육지와는 다른 바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해양문화의 특성을 통해 그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해양문화의 특성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⁹⁾, 첫째는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 둘째는 공존성, 셋째는 교류성, 넷째는 개방성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바다가 지닌 이 원형적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해양문화가 지니 가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㉞ 생명의 시원과 생명 재생의 공간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생명의 시원이 바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인류의 생명은 해양에서 오고, 해양이라는 자연천성의 광대한 장관, 변화무쌍함, 거대한 에너지, 자유분방함, 무궁한 신비감 등이 인류로 하여금 이 해양을 생명 본능의 대상물이자 힘과 지혜의 상징이자 담지자로 여기게끔 만들었다¹⁰⁾.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문명은 자신들의 배설물을 쏟아내며 생명의 근원이었던 바다를 재생 불가능한 바다로 만들고 있다. 아직 심해까지는 미치지 않았지만, 연안의 바다는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가 육지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정화시키고 있지만, 바다가 지닌 재생력을 넘어서 있기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다가 지닌 원초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육지 중심의 사유로 인해 빚어진 생명파괴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유가 가능하다. 즉 바다는 육지에서 삶을 주체하고 있는 인간의 아픔과 슬픔, 절망을 치유하는 생명재생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다와 육지

9) 해양문화의 특성을 여러 논자들이 몇 가지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방성, 외향성, 모험성, 숭상성(崇尙性), 다원성, 개척성, 원창성(原創性), 진취성, 표류성, 섭해성(涉海性),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 등이다. 곡금량, 김태만. 안승용·최낙민 옮김. 앞의 책, 51~60쪽 참조.

10) 위의 책, 58쪽.

를 두고 본다면, 바다는 육지보다 더욱 큰 인류생명의 본연성과 장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다가 지닌 원형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육지 중심의 사유가 파생한 비생명적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한다. 이 대안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생성해 나간다면, 해양문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㉔ 월경하는 공존공영의 공간

바다를 통한 인류와 물자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월경성(越境性)이다. 바다는 원래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육지의 땅에 국경을 정하듯이 바다에도 인위적으로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다. 바다에 선을 그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의 설정 범위와 방법 그리고 논리가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바다의 경계론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사상이 관여하고 있다. 하나는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라는 사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다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상이다. 전자는 바다는 광대하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공유론을 의미하며, 후자는 소유권, 이용권, 점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다¹¹⁾.

땅은 개인 혹은 국가 단위의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바다는 이런 소유개념이 땅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바다에 대한 소유와 분할에 대한 논쟁은 상당했다. 중세 이전까지 해양은 모두에게 개방된 자유영역이었으나 16, 17세기에 걸쳐서 포르투갈은 인도양에, 스페인은 태평양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외국선박의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였다. 1609년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Grotius, H.)는 해양자유론(Mare liberum)을 발표하여, 해양은 광대하여 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양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사용이 자유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1618년 영국의 셀덴(Selden, J.)은 해양폐쇄론(Mare clausum)을 발표하여 영국의 해양주권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던 광대한 바다에 대한 주권의 주장이나 영국의 바다에 대한 요구도 그 뒤 점차 미약해지고, 바다는 연안에 인접한 영해와 자유로운 공해로 구분되었다.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종래 관습법의 형태로 형성, 규제되어온 공해에 대한 일반적인 법과 각종 조약을 제정하여 '공해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것이 최초의 성문화된 공해조약이다. 그 뒤 1982년 <해양법>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위한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해양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제86~115조에 걸쳐 공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국제수역 공해 조약'이 20년 만에 200개국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 찬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바다가 각국의 위치에 따라 해면의 소유나 영유를 하고 있기는 하나 육지와 비교하면 바다는 많은 공간을 공유의 영역인 공해로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육지와는 다르게 지구촌 전체가 공용할 수 있는 공해가 있다는 것은 바다가 지닌 육지와는 다른 태생적 조건이며, 중요한 해양문화의 가치를 생성해 나갈 수 있는 원형적 이미지이다. 바다가 지닌 이 공해의 원형적 이미지

11) 오모토 케이이치외/김정환역, 『바다의 아시아』1, 다리미디어, 2003, p.52

를 육지를 중심으로 살면서 상실한 공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켜나간다면, 해양문화의 정체성을 평화공존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㉔ 해수의 순환과 교류의 공간

지구에는 대기의 순환이 있고, 바다에는 해수의 순환이 있다. 세계 각지의 기후는 이 두 가지 순환계의 상호작용에 지배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의 순환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재(偏在)로 인해 발생한다. 적도 부근에서 뜨거워진 대기는 상승하고, 극 부분에서 차가워진 대기는 하강하여 양 지역 사이에 대기의 대순환이 일어난다. 대기 순환은 태양 복사열의 지역차로 인해 일어나지만, 해류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저위도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과 중위도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으로 인해, 북반구에서는 시계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해류의 큰 흐름이 생긴다. 해류는 대기의 순환 시스템과 연동할 뿐만 아니라 각지의 해양환경도 결정짓는다. 이 바다의 순환 시스템이 각지의 해양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데, 태평양으로 보면, 아시아 최대의 해류는 태평양 서안으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이다.

오대양에서 생성되어 흐르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해류의 흐름은 해안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순환하는 특징을 가진다. 바다의 해류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교류하면서 바다의 다양한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는 환경과 조건을 형성해준다. 이러한 바다 해류가 지닌 순환과 교류의 특성은 땅을 경계지워 국경을 만들고 갈등해온 인류의 갈등을 소통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유의 터를 마련해 준다. 바다가 지닌 교류의 원형적 이미지는 땅 중심의 사유가 지닌 불통의 이미지를 초극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를 해양문화의 가치로 현실화할 수 있다면, 새롭게 인류평화의 진전을 위한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㉕ 열림을 통한 개방성과 다양성

바다는 6대 주의 육지와 크고 작은 섬들과 연결되어 있고, 인류가 사는 대다수 민족, 국가, 지역은 바다에 면해 있다. 바다는 인류를 향해 남김없이 개방되어 있다. 육지의 도로나 철로는 인공으로 부설되었지만, 바다의 길은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천연적 개방성이야말로 그 누구도 가로막거나 끊어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인류는 이러한 바다의 개방성을 이용해 인류문화를 전개해왔다¹²⁾.

바다라는 공간은 광역 지역을 구성하는 다문화, 다민족, 다권력의 상호관계를 형성시켰으며, 대량의 물자나 인원 수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해양자원은 배후지나 내륙과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연안에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¹³⁾. 이러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해역이다. 해역세계는 연해(沿海), 환해(環海), 연해(連海)의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12) 곡금량, 김태만, 안승용, 최낙민 옮김. 앞의 책, 57쪽.

13) 오모토 케이이치외/김정환 역, 앞의 책, p.136

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연해(沿海), 환해(環海), 연해(連海)에 의해 성립된 해역세계는 육지와는 달리 다원성, 다양성, 포괄성을 지닌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다양하고 개방적인 항구도시를 가능하게 한 근원적 토대는 바다가 지닌 열린 공간에서 비롯된다. 바다가 지닌 이런 열림이란 원형적 이미지는 끊임없이 세계를 열어 교류를 통한 평화를 현실화하는 문화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양문화가 지닌 인류 평화를 위한 해양인문학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맺으면서

부산지역은 바다를 통해 다른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진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역사적으로 400여년 전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왕래한 기록들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역사 속의 조선통신사를 현시점으로 불러내어 신조선통신사로 현재화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은 부산지역이 지닌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즉 조선통신사가 바다를 통해 왕래하던 200여년 간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지속되었기에 그 평화의 길을 다시 열어보겠다는 것이 부산문화재단이 지향한 신조선통신사가 지향한 가치였다. 그 가치를 구현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통해 한일 간의 민간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일 간의 조선통신사가 지녔던 평화 정신을 현재화하여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다시 써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 한일 간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공동등재였다. 그러므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통신사기록 유산은 조선통신사의 평화정신을 세계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할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평화 정신의 실현이 바다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바다가 지닌 열림과 교류와 공존과 생명의 원형적 가치는 신조선통신사가 지향한 평화의 문화적 가치와 함께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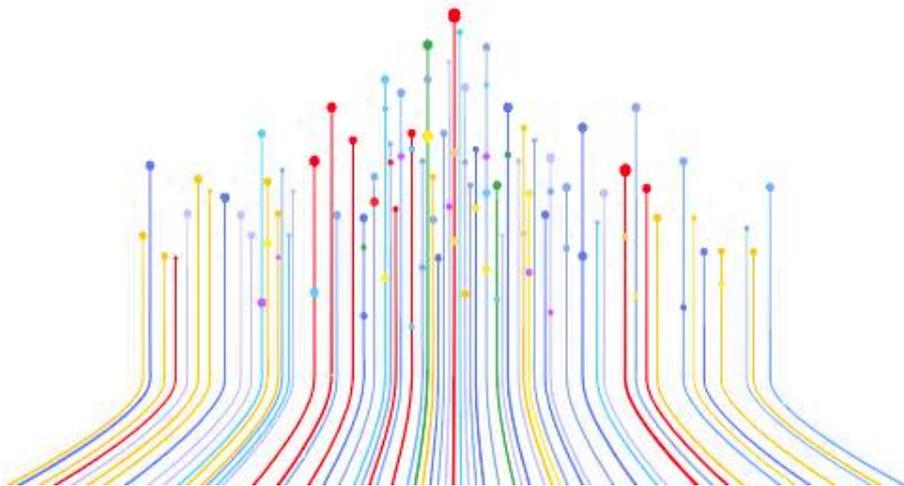
14) 위의 책, 140쪽.

- 종합토론 -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Lee Mee-yeon (CEO of Busan Culture Foundation)

요시모토 미츠히로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이사)
Yoshimoto Mitsuhiro (Director, Center for Arts and Culture at NLI Research Institute, Tokyo)

이창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Lee Chang-Gi (Chairman,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CEO of Seoul Cultural Foundation)



Arts with my life,
Culture with my
happy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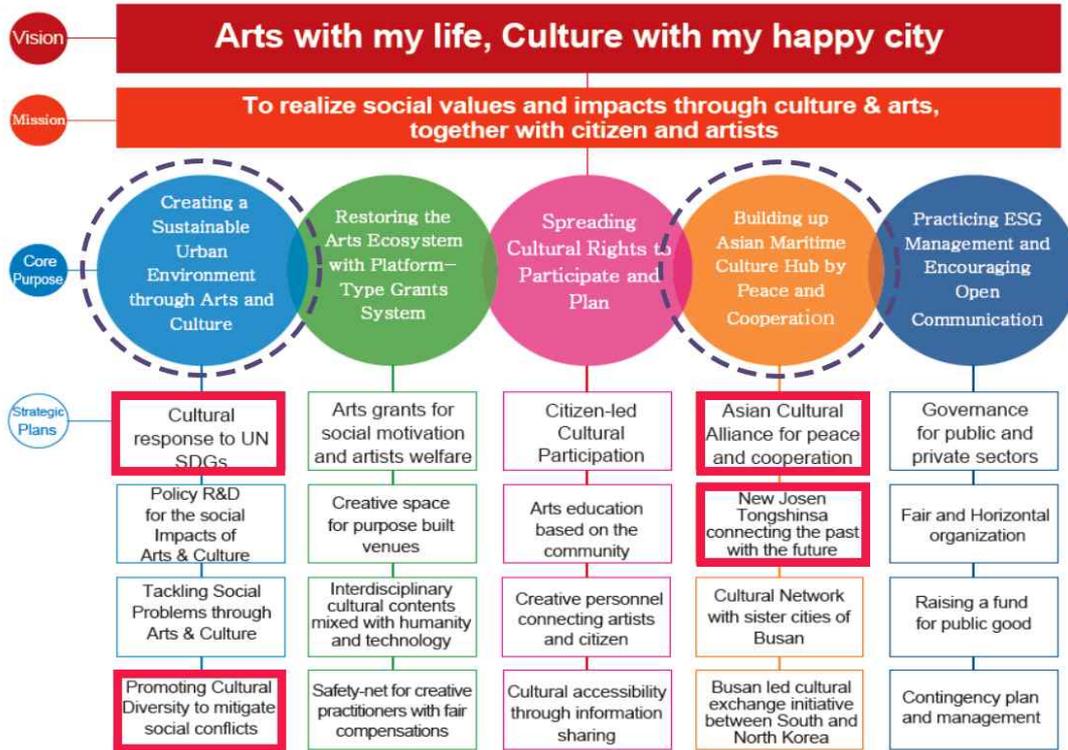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재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Busan Cultural Foundation Vision 2030



Cultural response to UN SDGs by BSCF

2023년도 문화다양성 사업 기본계획

요 약

□ SDGs 주요 코드 및 비전 2030 연계

SDGs 주요 코드	비전 2030 연계성		
	전략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5, 10, 11, 17	I	4	①②③④

□ 사업개요

- 사업 명: 2023년도 문화다양성 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2.

2023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본계획

요 약

□ SDGs 주요 코드 및 비전 2030 연계성

SDGs 주요 코드	비전 2030 연계성		
	전략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4, 8, 10, 11	I	4	⑤

□ 사업개요

- 사업 명: 2023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2.

2023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요 약

□ SDGs 주요 코드 및 비전 2030 연계성

SDGs 주요 코드	비전 2030 연계성		
	전략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4, 5, 10, 11	III	2	③④⑤

□ 사업개요

- 사업 명: 2023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 기간: 2023. 1. ~ 12.

2023년도 청년문화육성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요 약

□ SDGs 주요 코드 및 비전 2030 연계성

UN SDGs코드 연계	비전2030 연계성		
	전략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4, 8, 10, 11	II	1	①②

□ 사업명: 2023년도 청년문화육성지원

□ 기간: 2023. 1. ~ 12.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와 국제협력의 상징, 조선통신사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s handed down by Joseon Dynasty Diplomatic Missionaries, we have built a new international platform for cultural and art exchanges called the New Korean Diplomatic Missionaries. This platform has inherited the spirit of Sincere and Faithful Diplomacy. Moreover, we sprea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the records of Joseon Dynasty Diplomatic Missionaries by developing various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 records registered as UNESCO Memory of the World.



Passing Down
Cultural Heritages
and Expand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ultural Exchange Project of
Joseon Dynasty Diplomatic Missionaries
#Entrusted Operation of Quarters for
Joseon Dynasty Diplomatic Missionaries
#Traditional Folk Play on Saturdays



한일 공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ertifies the inscription of

*Documents on Joseon Tongshinsa/Chosen Tsushinshi: The History of Peace Building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Busan Cultural Foundation

(Institution)

Busan

(Town)

Republic of Korea

(Country)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30 October 2017

(Date)

Irina Bokova

*Irina Bokova
Director-General, UNESCO*

부산-유네스코 국제 문화 컨퍼런스: 토론

미츠히로 요시모토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이사

저는 도쿄 소재 NLI 연구원의 미츠히로 요시모토 문화연구센터장입니다. 부산-유네스코 국제 문화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와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1958년생입니다만 지금처럼 전쟁이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새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술과 문화를 통한 국제 교류와 상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 예술과 문화일까요? 저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과 문화는 정치와 경제에서 자유로운 국제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상호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나, 혹은 경제적 갈등을 겪는 국가들이라도 문화를 통한 국제 교류와 상호 이해는 가능합니다. 예술가는 국경을 넘어 정치 경제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국력과 경제력은 경쟁이나 갈등의 씨앗이지만, 예술과 문화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피아노 콩쿠르나 영화제 경쟁 부문 같은 것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문화적 산물을 창조하고 종국에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돌아오는 재능있는 예술가를 발굴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술과 문화는 도시 간 교류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도시의 가치와 매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Cultural City of East Asia)”는 2014년 한·중·일 문화부 장관의 합의로 시작되었으며, 앞서 말한 생각을 실현한 것입니다.

사업 첫해에,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중국 취안저우시(Quanzhou City), 일본 요코하마시(Yokohama City)가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저는 요코하마시의 프로그래밍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와의 교류는 순탄하게 시작되어, 요코하마의 예술 NPO뱅크아트(NPO BankART) 프로젝트로 “동아시아의 꿈(Dream of East Asia)”이라는 제목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조선의 외교 비용(Joseon Korean Diplomatic Expenditures)”을 위한 현대적인 후속 프로젝트 또한 개발되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이 프로젝트 실행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저는 처음에 취안저우시와의 교류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중 관계가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양국 관계가 과열되고 일본 작가의 책이 중국 서점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에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문화와 예술가의 교류를 “영혼이 오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며 신문에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기고했습니다.

그러나 요코하마에서 취안저우시를 방문했을 때 엄청난 환대를 받았으며, 양 도시는 국가적 이슈와 무관하게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시는 수많은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조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간 문화 교류는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부산 역시 2018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화는 사람들, 특히 개인 간 깊은 우호 관계와 신뢰를 강화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도 인간의 마음이다.” 아시다시피, 이는 유네스코 헌장의 첫 문장입니다. 저는 개인이 국경을 넘어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의 초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화를 옹호하는 일본의 국제 문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 음악 교육 축제로 시작된 삿포로 태평양 음악 페스티벌(Pacific Music Festival Sapporo, PMF)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전도유망한 젊은 음악가 100여 명이 매년 여름 한 달간 삿포로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빈 필하모닉이나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에 사사합니다. 번스타인(Bernstein)은 193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시작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탕글우드 페스티벌(Tanglewood Festival)과 유사한 음악 교육 페스티벌을 아시아에서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베이징에서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이 페스티벌을 베이징에서 열고자 했던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후보지로 부상한 삿포로는 그 초청을 수락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30년간, 77개국과 지역에서 온 3,600여 명 이상이 PMF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한국 수료생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234명이며,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수료생도 있습니다. 수료생들은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전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활발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PMF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이사 중 한 명이 러시아를 오디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페스티벌은 평화에 관한 것이기에, 러시아 참가자의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번스타인 사후 음악 감독직을 맡았으며, 2019년 다시 재임한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Christoph Eschenbach)는 “음악은 정치, 종교, 피부색, 그 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의 감정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술과 문화는 다음의 이유로 세계 평화에 필수적입니다. 1. 정치와 경제에서 자유롭고, 2. 도시 간 교류에 필수적이며, 3. 개인 간 깊은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에는 불행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저는 이를 잊지 않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세기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불교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일본 문화가 한반도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여 년도 전에 에도 막부는 한반도에 500여명의 “문화 사절

단(cultural mission)”을 “조선통신사(Joseon missions to Japan)”로 초청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없었다면 현재 일본 문화 또한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수 세기, 혹은 수천 년 지속된 한일 교류 역사 중에 찰나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컨퍼런스가 한일 양국이 문화에 바탕을 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이것이 세계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釜山ユネスコ文化会議のための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

吉本光宏（ニッセイ基礎研究所 研究理事・芸術文化プロジェクト室長）

東京のニッセイ基礎研究所の吉本光宏と申します。この文化会議にお招き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文化と世界平和をテーマにした総合討論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たいへん光栄に存じます。

1958年生まれの私にとって、今ほど戦争を身近に感じたことはありません。平和がいかに尊いものか、認識を新たにしています。おそらく皆さまも同じ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んな時代にあって、芸術や文化をとおした国際交流、相互理解がかつてないほど重要にな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なぜ、芸術や文化なのか。私は3つのポイントを指摘したいと思います。

1つ目は、文化や芸術には政治や経済から独立した国際交流が可能だということです。仮に国同士が政治的に対立していたとしても、あるいは両国の間に経済的な摩擦が横たわっていたとしても、文化を通じた交流と相互理解は可能です。芸術家たちは政治や経済情勢に束縛されることなく、自由に国境を超え、芸術活動を展開します。

国力や経済力は競争や争いの種となりますが、芸術や文化には競争はありません。ピアノコンクールや映画祭のコンペティションなどがありますが、それは競争が目的ではなく、よりよい作品を海だし才能溢れるアーティストを見出すための仕組みであって、その芸術的な成果は広く世界に還元されます。

2つ目は、今後、ますます重要になる都市間交流において芸術や文化は必須だ、ということです。なぜなら、芸術や文化はその都市の価値や魅力を象徴する存在だからです。韓日中3ヶ国の文化大臣の合意で2014年に始まった「東アジア文化都市」は、まさしくそれを具現化したものです。

その最初の年、韓国は光州広域市、中国は泉州市、日本は横浜市が文化都市に選ばれ、私は横浜市の企画委員会の委員長を務めました。光州市との交流はスムーズに始まり、横浜のアートNPO BankARTが「東アジアの夢」と題した大規模な展覧会を開催しました。その一環として「続・朝鮮通信使」という事業も展開されました。その実現には釜山文化財団の大きな協力があつたと聞きます。

それに対し、泉州市との交流は当初、とても心配でした。なぜなら当時は尖閣諸島の問題で日中関係が最悪だったためです。それが過熱化し、中国の書店から日本人作家の書籍が引き上げられたとき、作家の村上春樹は文化や芸術家たちの交流を「魂の行き来する道筋」だと形容し、それをふさいではならない、と新聞紙上で警鐘を鳴らしました。

ところが、横浜市が泉州市を訪問したところ大歓迎を受け、国同士の問題に関係なく文化交流を力強く推進しようとなり、両市は数多くの文化交流を展開しました。

まさしく、私が一つ目に指摘したとおり、国同士の政治的な対立を超えて、都市間の文化交流が行われたのです。釜山市も2018年に東アジア文化都市に選ばれています。

3つ目は、文化は民間同士、とりわけ個人と個人の上に深い友情や信頼関係を育むということです。「戦争は人の心の中で生まれるものであるから、人の心の中に平和のとりでを築かなければならない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これは、ご存じのとおりユネスコ憲章の冒頭の一文です。まさしく、個人と個人が国境を超え、文化を通して理解し合い、互いの違いを尊重し合うことが、平和の礎になる、と思えるのです。

平和を標榜する日本の国際的な文化事業の代表例をひとつ紹介します。それは、1990年に音楽教育フェスティバルとして始まったパシフィック・ミュージック・フェスティバル札幌、PMFです。米国の著名な指揮者レナード・バーンスタインの提唱で始まったもので、毎年世界中からオーディションで選ばれた約100名の若くて有望な演奏家が札幌に集まり、夏の1ヶ月間、寝食をともにし、ウィーンフィルやベルリンフィルなど世界トップレベルの演奏家の指導を受けます。バーンスタインは、米国マサチューセッツ州で1930年代に始まって、大きな成果を残していたタングルウッド音楽祭と同じような教育音楽祭をアジアでも創設したいと考え、当初は北京での開催を計画していました。

しかし、1989年の天安門事件で北京開催は断念せざるを得なくなりました。そこで、急遽、札幌市が候補となり、受け入れを英断して、実に短期間の準備で開催にこぎ着けました。以来、約30年間、PMFの修了生は、世界77ヶ国・地域の3600名以上にのぼります。韓国からの参加は日本に次いで多い234名で、ウクライナやロシアからの参加もあります。彼らは卒業後も交流を続け、お互いに励まし合いながら世界中のオーケストラで活躍しています。

私はPMFの評議員を務めていますが、昨年2月に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が始まった直後の評議員会でこ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ある評議員が、ロシアをオーディションから排除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のです。私は、平和をかかげる音楽祭だからこそ、受け入れるべきだと申し上げ、そのようになりました。

バーンスタインの死後、音楽監督を引き継いだ指揮者のクリストフ・エッシェンバッハは、2019年に再び音楽監督を務めた際、「音楽は、政治も宗教も肌の色もすべてを超えて、世界中の人の感情に話しかけ、人々を一つにする」と語っています。

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芸術や文化は、1. 政治や経済から独立していること、2. 都市間交流に欠かせないこと、そして3. 個人と個人の深い信頼関係を生み出すこと、その3つが文化や芸術が国際平和になくてはならない理由なのです。

韓国と日本の間には、不幸な歴史が横たわっています。私は日本人の一人としてそのことに対する反省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しかし、6世紀に百済を通じて日本に仏教が伝来するなど、遙か昔から日本は朝鮮半島、韓国から入ってきた文化を起源に自らの文化を育んできた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江戸幕府は「朝鮮通信使」として二百数十年間、朝鮮半島から500人規模の「文化使節団」を招いていました。韓国との文化交流がなければ、現在の日本の文化は存在していなかったとすら言える。私はそう思うのです。

この釜山ユネスコ文化会議は、百年、千年を超える韓日交流の歴史の中では、ほんの一瞬のこと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この会議をとおして、韓日が文化からの友好を深め、それが国際的な平和構築へとつながっていくことを切に願っています。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Discussion paper for Busan–UNESCO Culture Conference

Mitsuhiro Yoshimoto

(Director, Center for Arts and Culture at NLI Research Institute)

My name is Mitsuhiro Yoshimoto from NLI Research Institute in Tokyo.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e Busan–UNESCO Culture Conference.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discussion on the theme of culture and world peace.

I was born in 1958, and I have never felt closer to war than I do now. I have a renewed awareness of how precious peace is. I am sure that the same is true for all of you.

In these times, international exchange and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art and culture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Why art and culture? I would like to make three points.

The first is that art and culture are capable of international exchange independent of politics and economics. Even if countries are politically conflicted with each other, or if there is economic friction between them, international exchange and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ulture is possible. Artists are free to transcend national borders and develop their artistic activities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political or economic conditions.

National power and economic strength are the seeds of competition or strife, but there is no competition in art and culture. There are piano competitions and film festival competitions, but they are not for the purpose of competition, but rather as a mechanism to create better cultural productions and find talented artists, whose achievements will be returned to the world at large.

The second is that art and culture are essential to the increasingly important city to city exchanges, because art and culture symbolize the value and attractiveness of a city. The "Cultural City of East Asia," which began in 2014 with the agreement of the culture ministers of Korea, Japan, and China, is a realization of this very idea.

In its first year,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South Korea, Quanzhou City in China, and Yokohama City in Japan were selected as cultural cities, and I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programming committee of Yokohama City. Exchanges with Gwangju began smoothly, and Yokohama's art NPO BankART organized a large-scale exhibition entitled "Dream of East Asia". As part of this project, a contemporary sequel for the "Joseon Korean Diplomatic Expenditures" was also developed.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greatly assisted in the realization of this project, I heard.

On the other hand, I was very worried about the exchange with Quanzhou City at first. This was because Japan–China relations were at their worst at the time due to the Senkaku Islands issue. When the relationship heated up and books by Japanese authors were withdrawn from bookstores in China, Haruki Murakami, a Japanese novelist, described the exchange of cultures and artists as "a pathway for souls to come and go," and warned in the newspaper that it must not be blocked.

However, when Yokohama City visited Quanzhou City, it received a great welcome, and the two cities decided to vigorously promote cultural exchange regardless of national issues, and the two cities developed numerous exchange programs.

As I mentioned in the first point,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cities transcended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countries. Busan was also selected as an East Asian Cultural City in 2018.

Third, culture fosters deep friendship and trust between people, especially between individuals.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As you know, this is the first sentence of the UNESCO Charter. It seems to me that individuals, transcending national borders, understanding each other through culture, and respecting each other's differences are the cornerstones of peace.

Let me introduce one representative example of Japan's international cultural programs advocating peace. It is the Pacific Music Festival Sapporo, or PMF, which began in 1990 as a music education festival. About 100 promising young musicians selected by audition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 in Sapporo every year for a month during the summer, to share a meal and receive instruction from world-class performers such as the Vienna Philharmonic and the Berlin Philharmonic. Bernstein wanted to establish an educational music festival in Asia similar to the Tanglewood Festival, which had achieved great success in Massachusetts, USA, since its foundation in the 1930s. He initially planned to hold the festival in Beijing.

However,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in 1989 forced the festival to abandon its Beijing plans. Sapporo was suddenly selected as a candidate, and the city made the wise decision to accept the invitation. In the 30 years since then, more than 3,600 PMF graduates from 77 countries and regions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number of participants from Korea is the second largest after Japan, with 234, and there are also participants from Ukraine and Russia. They continue to communicate after graduation, encouraging each other to play an active role in orchestras around the world.

2023 Busan Culture Conference

I am a member of the PMF board of trustees, and this happened at a trustee meeting just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began last February. One of the trustees suggested that Russia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uditions. I said that because the festival is about peace, we should accept them, and we did.

Conductor Christoph Eschenbach, who took over as music director after Bernstein's death and will do so again in 2019, said, "Music speaks to the emot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transcending politics, religion, skin color, and everything else, bringing people together."

Again, arts and culture are essential for international peace because 1. they are independent of politics and economics, 2. they are essential for city-to-city exchanges, and 3. they create deep trust between individuals.

There is an unfortunate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Japanese, I believe that we must not forget to reflect on this. However, we know that Japan has long nurtured its own culture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evidenced by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Japan through Baekje in the 6th century. For more than two hundred years, the Edo Shogunate invited a "cultural mission" of 500 people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the "Joseon missions to Japan". It can even be said that without cultural exchange with Korea, the present Japanese culture would not have existed. I believe so.

This Conference may be just a brief moment in the history of Korea-Japan exchange that has lasted more than centuries or a thousand years. However, I sincerely hope that through this conference, Korea and Japan will deepen their friendship through culture, and that this will lead to the building of international peace.

Thank you very much.

[부산-유네스코 국제 문화 컨퍼런스 토론]

지역사회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사회적 역할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이창기

1. 한국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재단의 등장 및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배경

한국에서의 광역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지역별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지역 간 협력과 연대의 주체로서 광역문화재단 연합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광역시·도 문화재단 대표자들은 선언문 "지역문화발전이 문화복지국가의 핵심이다"를 발표하면서 2012년 10월 26일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발족시키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협력 활동을 해오다가, 좀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갖추기 위해 2016년 5월 재창립을 선언하면서 2017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것에 목적을 둔 시·도 광역문화재단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정책 협의기구이며 지역분권시대에 지역문화진흥의 선도적 기관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 “연대와 협력”의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운영원리와 추진전략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주체 및 플랫폼”이라는 비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이라는 미션을 설정하고 있으며, ‘호혜와 협력’, ‘창조적 상상’, ‘열린 거버넌스’, ‘정책적 자주성’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제안,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지역문화주체들의 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꽃피우는 지역 문화의 씨앗”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과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력, 지역문화생태계의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연대와 협력을 통한 광역문화재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문화진흥의 협력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을 확산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고, 각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가치가 대한민국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17개 광역문화재단 간 긴밀한 네트워크와 소통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가 발현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 진흥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활동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생태적 가치 확산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 세대와 계층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문화복지, 문화다양성,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관계 역량, 정주환경과 지역경쟁력 등 다양한 과제들이 지역문화정책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창작자들이 모여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예술수요자 증대에 따른 효과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장소 마케팅과 정주환경에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광역문화재단의 활동이 앞으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더 크게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의 국·내외 협력, 연대의 플랫폼 기반 마련

광역문화재단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각 지역의 예술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예술지원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를 위해서는 광역문화재단들의 고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예술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이자 연대와 협력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문화정책의 ‘중앙-광역-기초’ 집행체계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과 위상 확립도 필요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중앙정부 정책수행의 단순 전달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수행의 효과적 역할분담체계 설정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식 개선과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통해 진정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지역문화정책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도시와 지역간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점점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사회적 평등 촉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많은 중요한 정책 문제는 점점 국가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세계 주요도시간의 교류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 World Cities Culture Forum)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은 문화예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며 사례 공유와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정책에 관해서도 유네스코 협력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도시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통의 문제와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는 세계 인류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문화시민도시’로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도시와 지역 차원의 전략적인 국제 협력 확대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usan Culture Conference: Discussion]

The Social Role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in Local Communities

LEE Chang-gi

Chairman,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1. Introduction to the Emergence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in Korean Cultural Policies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Local cultural foundations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with the objective of fostering a distinct local identity and nurturing regional culture. The inception of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n 1997 marked the beginning of this initiative, leading to the creation of 17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that have sinc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rts and culture while promoting societal values.

During the 2000s, as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continued to emerge, the significance of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in advancing local culture grew. Consequently, there was an increasing demand for the formation of an assembly of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unity among the regions. In response to this call, representatives from city and provincial cultural foundations issued a declaration asserting that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s central to a cultural welfare state." Thi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City and Province Cultural Foundations' on October 26, 2012.

Working collectively to fortify local culture, these representatives declared the reformation of the assembly in May 2016, with the goal of creating a framework for strengthened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January 2017,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was officially inaugurated as a corporation under the purview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serves as a voluntary policy cooperation organization among cultural foundations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ts primary aim is to unite, communicate, and collaborate in order to enhance the distinct cultural and artistic attributes of each region. The Assembly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advancing local culture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2. Solidarity and Partnership: Guiding Principles and Advancement Strategy of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envisions itself as "a principal agent and platform for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working towards the realization of a culturally rich nation." Its mission is to foster "unity in the advancement of local culture and collaboration in the pursuit of a cultural nation." Guided by four strategic pillars – 'mutual support and collaboration,' 'innovative imagination,' 'transparent governance,' and 'autonomous policy' – the Assembly of Foundations has undertaken task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policies and proposals, generation of synergy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of key stakeholders in local cultural sectors.

Under the banner of "a seed of local culture blossoming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e Assembly has facilitated ongoing exchanges and collaborative programs, transcending regional and resource limitations. It serves as a network platform for local cultural ecosystems, fostering cooperation and interconnectivity among its members.

VISION	A key player and platform for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to realize a cultural nation			
MISSION	Solidarity for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cultural nation			
ASSIGNMENT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policies and propos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stical research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local cultural policies (local cultural index, etc.) - Hosting cultural policy conference and publishing relevant reports - Regular proposals for government's cultural policies - Participation in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Local Culture Cooperation Committee) 		
	Creation of synergy via cooperation between reg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creation by exchanges among regions (National Artist Residency Festival, etc.) - Cooperative programs to invigorate living culture (Living Arts Cultural Festival, etc.) - International exchange and local cultural network expansion program - Fundraising for local culture 		
	Empowerment of the key stakeholders in local cultural s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Assembly's regular meetings and workshops - Capacity building and exchange workshops for employee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 Capacity building and exchange between local culture experts - Foundation program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 in cultural foundations, etc.) 		
STRATEGY	Reciprocity and cooperation Overcoming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simply balanced allocation logic	Creative imaginati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yond the constraints of regions and resources	Open governance Network platform for local cultural ecosystem	Independent policy Joint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using local resources

3. Strengthening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through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functions as a collaborative partner dedicated to nurturing local culture. By offering policy alternatives and striving to promote region-specific culture and arts, the Assembly contributes to elevating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culture and arts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local cultural and artistic domains.

As the role and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have grown in importance, it has swiftly adapted to changing policies and demands, sharing the value of culture and arts nationwide, grounded in the cultural diversity and resources of each region. The close network and communication among the 17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leveraging their unique experiences and expertise, will foster the propagation of local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The Assembly aims to serve as a catalyst for the growth of culture and arts in Korea.

There is a need to concentrate on initiatives that identify and address social issues through culture and arts, given the increasing emphasis on social and ecological values in the arts. Korea currently faces various social challe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ging, regional contraction, and generational and class conflicts. Moreover, numerous concerns have emerged as significant obstacles in local cultural policies, including cultural welfare, cultural diversity, local community competencies, social relationships, living environments,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To tackle these challenges in local communities, it is vital to invigorate local culture and arts scenes, fostering social values in culture and arts as a foundation for resolving community issues.

Establishing quality environments for artists attracts young talent, generating substantial economic effects and impacting local communities. Discussions on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s spurred by culture should extend beyond the influence of an increasing number of arts patrons, emphasiz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roles of culture and arts in local place marketing strategies and living environments. The activities of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are anticipated to become a driving force in addressing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4. Cooperatio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Establishing a Solidarity Platform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Firstly,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must enhance support for regional arts in order to foster a stable creative environment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hieving this requires a concerted effort to secure financial backing from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e arm's length principle should guide arts support, ensuring that governments provide support without

intervention. Consequently, expertise within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is crucial, necessitating cooperation in order to acquire the necessary skills and capabilities.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s role and the objectives of its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include invigorating the local arts creation ecosystem based on expertise, eleva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ing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values of the art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must assume relevant roles and establish their position within the execution system, which extends from central government to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primary local authorities. Local cultural foundations should not merely function as a policy implementation arm of the central government; instead, they must act as partners in policy development and share effective roles in program execution. To achieve this, the central government must raise its awareness,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must play a pivotal role. Moreover, a cooperative platform comprising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primary local cultural foundations,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will facilitate decentralization and ensur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ocal cultural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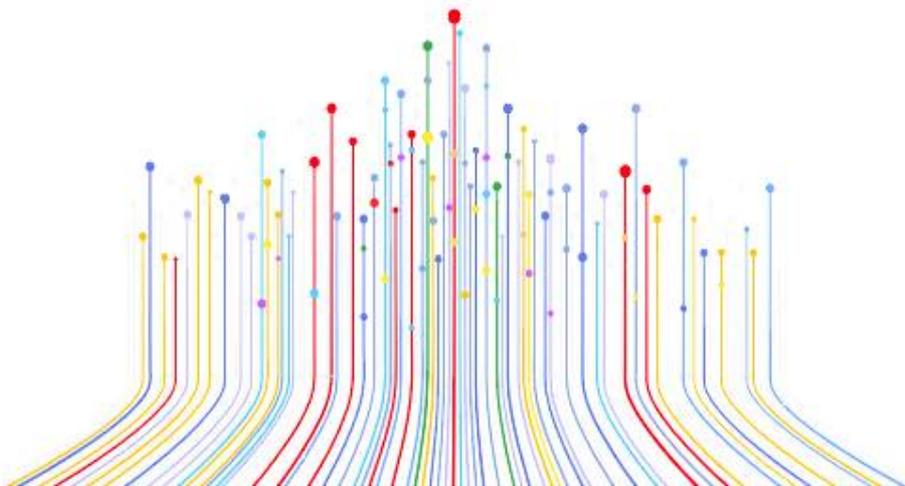
Expand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cities and regions is essential. Rapid urbanization is expected to result in two-thirds of the global population living in cities by 2030, leading to increasingly complex challenges for governments. Notably, crucial political issues of our time, such as climate change and social equality promotion, are driven at the city level rather than the national level.

Seoul City and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e members of the 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 an exchange network among the world's major cities. The WCCF shares the belief that culture and arts form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societies, conducts comparative research on creative urban cultural policies, and pursues mutual development through case study sharing and policy seminars. In relation to cultural diversity policies, collaborative activities with UNESCO should expand from the national level to the city level, involving participation from regions.

I firmly believe that cooperation and solidarity are vital for coexisting harmoniously and creating sustainable societies, sharing common issues and policies, and seeking alternatives. In an era where the cultural policy paradigm has shifted towards a 'city for cultural citizens' aimed at individual happiness within society, the strategic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ities and regions is of paramount importance.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2023 부산 문화 컨퍼런스
BUSAN CULTURE CONFERENCE

- 참석자 프로필 -



[국제포럼(Busan International Culture Forum)]



기조연설 <에르네스토 오토네 R>
<Ernesto Ottone R> keynote speech

주요경력

- UNESCO 문화부문 사무총장보
- 전 칠레 문화예술 및 유산 장관
- 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도서 진흥 지역 센터 의장

Major career

-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of UNESCO
- Former Minister of Culture, Arts and Heritage of Chile
- Former Chairman of the Regional Center for the Promotion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Books



주제발표1<파울라 레온치니 바르톨리>
Presentation1<Paula Leoncini Bartoli>

주요경력

- UNESCO 문화정책개발국장
- 전 UNESCO 문화부분 중장기 전략 및 예산 스페셜리스트
- 전 UN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 소속

Major career

- Director of Culture Policies and Development of UNESCO
- Former UNESCO Cultural Division, mid- to long-term strategy and budget specialist
- Forme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주제발표2 <펑 징>
Presentation2 <Feng Jing>

주요경력

- UNESCO 아시아 태평양 문화총괄
- 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Major career

-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Asia Pacific
- Member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f UNESCO



주제발표3 <남송우>
Presentation3 <Nam Song-woo>

주요경력

-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 (사)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
-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위원장

Major career

- Distinguished Professor at Kosin University
-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Humanistic Society
- Former CEO of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 Chairperson of the Joint Committee for Register of the Joseon Tongsinsha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종합토론 <요시모토 미츠히로>
Comprehensive Discussion
<Yoshimoto Mitsuhiro>

주요이력

-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이사
- 국가문화정책위원회 위원
- 도쿄예술위원회 위원장

Major career

- Director, Center for Arts and Culture at NLI Research Institute, Tokyo
- Member of the National Culture Policy Council
- Chairperson of the Tokyo Arts Council



종합토론 <이창기>
Comprehensive Discussion
<Lee Chang-gi>

주요이력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Major career

- CEO of Seoul Cultural Foundation
- Chairman,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종합토론 좌장 <이미연>
general discussion moderator
<Lee Mee-yeon>

주요이력

-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겸임교수

Major career

-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 Adjunc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Art Culture & Image, Pusan National University

[한·일 유네스코 연석회의(日韓ユネスコ懇談会)]



좌장 <장제국>
座長 <チャン・ジェグク>

주요이력

- 동서대학교 총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위원장

主な経歴

- 東西大学総長
- 韓国大学教育協議会会長
-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登録共同推進委員長



기조발언 <김영주>
基調挨拶<キム・ヨンジュ>

주요이력

-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 전 고용노동부 장관

主な経歴

- 国会副議長(民主党)
- 韓日議員連盟朝鮮通信委員会委員長
- ユネスコ韓国委員会委員
- 元雇用労働部長官



기조발언 <가와무라 다케오>
基調挨拶<河村建夫>

주요이력

- 일한의원연맹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
-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
- 일본 국회 중의원 10선 의원
- 전 일본 내각관방장관

主な経歴

- 日本国会衆議院10選議員
- 日韓議員連盟朝鮮通信委員会委員長
- 日韓親善協会中央会会長
- 元日本内閣官房長官



기조발언<김태환>
基調挨拶 <キム・テファン>

주요이력

-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회장대행
- 제 17, 18, 19대 국회의원
- 오상교육재단 명예이사장

主な経歴

- 日韓親善協会中央会会長代行
- 第17、18、19代国会議員
- オサン教育財団 名誉理事長



토론 <황보승희>
討論 <ファン・ボ・スンヒ>

주요이력

-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 2021년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
- 한일의원연맹 의원

主な経歴

- 第21代国会議員(国民の力)
- 2021年釜山未来革新委員会委員
- 韓日議員連盟議員



토론 <강남주>
討論 <カン・ナムジュ>

주요이력

- 전 부경대학교 총장
-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 측 학술위원장

主な経歴

- 元釜慶大学総長
- 元釜山文化財団代表理事
-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登録学術委員長



토론 <마츠바라 카즈유키>
討論 <松原一征>

주요이력

-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 이사장
- 대주해운 대표이사

主な経歴

- NPO法人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理事長
- 大州海運代表取締役



토론 <한경구>
討論 <ハン・ギョングク>

주요이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전 서울대학교 교수

主な経歴

- ユネスコ韓国委員会事務総長
- 元 ソウル大学校教授

[2023 유네스코와 함께 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재)부산문화재단

참여 기관 :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일본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부산문화재단>

총괄 : 대표이사 이미연

기획 :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

운영 : 정책연구센터(원향미, 고나령)

협력 : 문화유산팀(김현승, 김효정)

지원 : 기획경영실

(박소윤, 안재홍, 김정, 서환규, 김지혜, 김보령, 김보미, 박슬기, 신성현, 이수현)

<대행사>

(주)더굿커뮤니케이션, 문화공감J

문의 : 051-745-7207~8